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朴時翼

水原地域의 傳統建築과 風水地理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 華城行宮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Geomancy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in Suwon Area

-centering on Hwaseong haenggung-

2003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不動產投資金融專攻

鄭盤石

鄭盤石의 不動産學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3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 目 次

##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目的과 範圍 .....	1
1. 研究目的 .....	1
2. 研究範圍 .....	4

## 第2章 風水地理學의 理論的 考察

第1節 風水地理의 意義 .....	5
1. 風水의 概念 .....	5
2. 風水의 目的 .....	5
3. 風水의 本質 .....	6
4. 風水의 四象體系 .....	7
第2節 風水와 陰陽 .....	7
1. 總說 .....	7
2. 易卦 .....	8
3. 三易 .....	9

第3節 灣頭形勢 .....	12
1. 形態에 따른 影響 .....	12
2. 吉凶의 形態 .....	13
3. 形態 種類 .....	15
4. 形態의 種類(복합형) .....	16
5. 風水의 裨補 .....	18

### 第3章 風水地理와 建築 및 都市와의 關係

第1節 漢陽天道와 風水地理 .....	20
第2節 風水地理와 住居 立地의 관계 .....	21
1. 意義 .....	21
2. 住居 立地의 環境的 條件 .....	23
第3節 風水地理와 都市 建築의 立地 .....	28
1. 傳統的 都邑 風水 .....	28
2. 現代的 都市 風水 .....	30

## 第4章 華城建設과 風水地理

第1節 華城建設 .....	41
1. 華城의 風水地理 .....	47
2. 華城行宮의 風水地理 .....	57
第2節 水原 新邑治 造成 .....	63
1. 水原 新邑治의 地理的 條件 .....	63
2. 柳馨遠의 水原 新邑治 地理觀 .....	68
3. 水原 新邑治의 風水地理 .....	70
第3節 顯隆園 遷園의 展開科程 .....	73
1. 顯隆園 遷園의 風水的 背景 .....	73
2. 顯隆園의 風水地理 .....	79
3. 顯隆園 遷園의 展開科程 .....	84
第5章 結論 .....	92
◇참고문헌 .....	95
◇ABSTRACT .....	97
◇감사의 글	

## 그림 목차

[그림 4-1] 화성천도

[그림 4-2] 수원부지도

[그림 4-3] 동북각루외도

[그림 4-4] 도설화성전도

[그림 4-5] 화성 축조 당시모습

[그림 4-6] 화성도

[그림 4-7] 신흥루 입면도

[그림 4-8] 수원도

# 第1章 序論

## 第1節 研究目的과 範圍

### 1. 研究目的

우리 나라의 역사속에서 풍수지리사상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철학이며 이론으로 또는 한 수단으로 공존해왔다. 한반도 전체 지세의 70%가 산으로 덮혀 있는 자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祈福信仰과 연결되어 개인의 安寧을 위한 역할과 도움과 궁원 및 府基·官衙의 입지를 선정할 때 線이나 面으로 氣가 흐르고 머문 곳에 입지를 선정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를 이론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전통적 풍수지리관은 크게 陰宅風水과 陽宅風水으로 구분된다. 음택은 죽은 사람들의 주택, 곧 산소 자리에 대한 이론이고, 양택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도시 등에 해당된다. 음택과 양택 풍수는 모두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공간의 기운, 즉 산이나 강, 방위 등 자연 지세에 따라 생기는 기운과 건축물 등의 사람이 만든 인위적 기운을 분석하는 일이다.<sup>1)</sup> 따라서 공간적 기운을 분석하여 우리 민족의 번영과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풍수지리는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信飭해야할 대상이다.

고려의 太祖 王建은 그의 출생시부터 風水地理說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가 고려를 세우고 太祖가 되어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風水地理思想은 그의 기본적인 政治哲學의 하나로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태조 왕건의 풍수지리사상은 그의 「訓要十條」에 잘 나타나 있으며, 왕건 이후의 고려시대 정책에 있어서도 풍수지리설은 오랜 기간 일관되게 주요한 사상적 기준이 되었다.

---

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의 太祖 李成桂 역시 그의 유년시절부터 無學 大師 등과 얽힌 風水地理說과 관계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성계는 朝鮮을 건국한 이후에 새로운 首都를 漢陽으로 천도함에 있어서 풍수지리설의 理論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開城의 地勢가 다했음으로 西京으로 遷都하고자 주장하던 妙淸의 亂은 風水地理說를 이용하여 西京派의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정권투쟁이었다. 이렇듯 우리 역사에서 정치권력에 있어서 풍수지리사상은 밑바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욱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여 진행되었던 역사적 사실은 正祖時代 顯隆園 遷園과 水原府 邑治의 移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를 통치한 역대의 27명의 帝王 가운데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군주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제4대 세종과 제22대 정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세종이 왕조의 초창기에 훈민정음의 창제를 비롯하여 농업·과학·국방·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이룩한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봉건적 모순이 격화되던 후기 왕조사회를 통하여 왕조의 중흥과 文藝復興의 시대를 구현한 정조의 업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중매체에 친숙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정조는 壬午禍變 때 비운의 죽음을 당한 사도세자의 아들로써 효심이 지극하여 亡父의 묘를 수원 花山에 遷葬하는 열성을 보였다든지, 또 일부 식자층에서는 왕실도서관인 奎章閣 정도를 창설한 임금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조는 천장을 계기로 유교적인 王道政治의 요체로서 聖君 절대주의적 이상과 민본주의의 구현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조선 성곽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華城을 축성하였다.

즉 18세기말에 건설된 수원 신도시는 왕조중흥과 혁신정치를 표방한 계몽절대군주 정조의 정치적 이상과 실학자들의 경륜이 어우러진 역사적 사업으로 건설된 것이었으니, 576칸의 조선 최대의 행궁을 비롯한 여러 官衙·鄉校·軍營 건물과 도로·상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營建하였

다. 무엇보다 조선 최고의 邑城으로서 방어시설을 겸한 총연장 5,7km에 이르는 화성 성곽을 축조했으며, 壯勇外營이란 강력한 친위군단을 창설하여 주둔케 하였다. 또한 성 외곽에는 대대적인 농경지의 개간, 祝滿堤·萬石渠·萬年堤 등의 큰 저수지와 大有屯·축만제둔[西屯] 등 屯田의 설치 등을 통하여 농업진흥을 도모하였다. 또한 전국의 富戶와 상공업자들을 유치하여 정부지원과 민간자본에 의한 상공업의 발전을 획책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이 고장을 계획된 세계적인 성곽도시, 전국 유수의 근대적인 대도시로 발전케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조의 위업과 화성에 대한 연구는 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군사적·경제적·문화적 분야로만 연구되어왔다. 풍수지리사상에 관한 전문 연구성과 역시 현릉원 및 화성의 풍수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고 다만 成東桓의 顯隆園 遷園과 華城建設을 통해 본 正祖의 風水地理觀가 전부인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에서 본연구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현릉원과 수원 신읍치의 풍수지리적 사고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필자는 현릉원 천원과 수원 신읍치 선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검토는 정조가 자신의 왕권강화를 위해 현릉원 천원 및 수원의 읍치 이전을 주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릉원의 풍수지리와 수원 구읍치 및 신읍치의 풍수지리를 비교하여 17세기 이후 나타난 풍수지리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17세기 이전이 전통적 풍수지리관이 주도했던 사회였다면 17세기 이후 18세기에 이르러 풍수지리의 변화된 인식과 그로 인해 궁원·부기·관아터의 선정에 대한 풍수지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화성은 17세기 實學的 地理觀에 의해 선정된 수원 신읍치 위에 축성된 18세기 성곽문화의 절정이다. 이것은 당시 정조를 비롯한 신료들과 백성들의 합심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화성의 규모와 위치가 풍수지리가 적용되었다.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진척되지 않았고, 관련 문헌조차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화성성역의 목적이자 화성의 중심지인 화성행궁의 궁원 건축과 풍수지리를 통해 수원이 조선후기 사회

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 도시였음을 밝혀주고자 한다.

## 2. 研究方法

본 연구는 현재 마을이나 都市의 입지를 보면서 風水地理 理論이 우리들의 住居 立地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思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傳統社會에서 環境文化에 영향을 준 風水地理說은 대부분의 都邑이나 住居地의 立地를 정할 때 가장 큰 影響을 미쳤음을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과거 文明이 오늘날처럼 發達되기 이전에 있었던 風水地理說은 과거에만 있을 수 있는 일종의 迷信으로 看做하여 學問的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風水地理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으른 자가 祖上의 墓所를 明堂에 묻어서 그 德으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속되고 터무니없는 迷信」으로만 알고 있다.<sup>2)</sup> 그러나 風水地理는 科學이며 우리 傳統과 脈을 같이하는 중요한 思想임을 수 천년의 歷史的 기록에 의해 確認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科學의 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祖上들의 사상에 影響을 준 風水地理 理論을 科學的으로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風水地理說을 研究하는 과정에서 風水地理의 發生地가 韓國이었음을 알게되었으나 現存하는 風水書 대부분은 中國에서 건너 온 것들로 現存하는 書籍인 「靑烏經」, 「錦囊經」, 「胡舜申의 地理新法」, 「名山論」, 「人子須知」 등과 韓國 風水地理學의 原典이랄 수 있는 李重煥의 「擇里志」를 參考資料로 하였다.

본 研究의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장의 序論에 이어 제2장에서 風水地理학의 이론적 고찰에 대하여 문헌을 통하여 調査하였고 제3장에서 風水地理와 건축 및 도시와의관계에 대하여 논문이나 고서를 참조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2장 3장에서 전개된 이론을 바탕으로 수원지역의 전통건축과 풍수지리와의 관계에 대해(화성행궁을 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제5장 結論에서는 본 研究의 結果를 要約하여 說明하였다.

---

2) 박 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 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第2章 風水地理學의 理論的 考察

### 第1節 風水地理의 意義

#### 1. 風水의 概念

일반적으로 부르는 풍수란 말은 풍수지리학의 줄인 말로 地學, 堪輿라고하는데 국제적 학술용어로 중국 북경어의 풍수(風水:fieng shui)를 그대로사용 한다. 그렇다면 풍수라는 말에서 풍(風)은 기(氣)와 정(精)을 뜻하며 수(水)는 피를 뜻한다. 따라서 풍수란 천지(우주와같은말)의 기와정, 그리고 혈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풍과 수는 온도와 습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습도와 온도는 일반적 의미의 그것이야니라 지구상의 수많은 환경요소들을 대칭(代稱) 하는 넓은 뜻을 담고 있다. 결국 풍수란 곧 환경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수있다. 동양에서는 온도를 양(陽)이라하고 습도를 음(陰)이라고 하여 풍수라고 하면 음양의 학문으로 통하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음과양이 풍수학의 요체가된다. 둘째, 감여라는 용어는 ‘큰가마’ 라는 뜻이다. 이는 모든환경요소들을 큰가마속에 집에넣어 분석하여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이 되도록 조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지학이라는 말은 ‘지리학’의 준말로 산과물(환경요소뜻)의 품세와 동정을 연구하여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좋은 것과 나쁜것을 분별하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 2. 風水의 目的

우리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시라도 멈춤이 없이 계속 변한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변화는 법칙을 알고 대처 한다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주에는 인간과 만물의 삶에 필요한 여

러 요소들이 있다. 이것을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환경의 생식과 변천에 변할수없는 법칙이 있게 마련이다. 이 법칙을 동양에서는 음양(陰陽)오행(五行)의 법칙이라 한다. 이런 사실의 밑바닥에는 우주전체가 하나의 잘짜여진 조직으로 어떤 규칙아래 움직인다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 중에 하나인 인간도 정해진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법칙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본다.

### 3. 風水의 本質

풍수의 본질은 생기와 감응(感應)이다. 생기란 음양오행의 기가 발양(發揚)하는 방법에 따라 바람이 되기도 하고 구름이나 안개도 되기도 하며 또는 비와 이슬이 되기도 한다. 이기가 땅속으로 흐르면 생기가 된다. 이 기의 상태에 따라서 만물이 생(生)하기도하고 멸(滅)하기도 한다. 즉 기는 만물의 생성을 주관하는 주체이며 삼라만상의 구경적(究竟的) 존재이다. 감응이란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하나이며 같은 기를 누린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풍수에서는 음양오행의 기를 본질로 하여 이 기의 상태 즉 후박(厚薄)소장(消長)에 따라 자연은 물론 사람도 생성 변화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 ▷ 국토의 설정과 이용계획      ▷ 지역관리에 관한 사업
- ▷ 도시촌락의 위치선정과 유형   ▷ 주거 및 주택설계
- ▷ 사후묘지선정

예를 들면 보모와 자손의 관계로 말하자면 부모는 나무의 뿌리와 같고 자손은 나무의 가지 에 해당한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생기감응(生氣感應) 과 동기감응(同氣感應)의 법칙이라 한다. 다시 이들 두가지 감응은 동기 감응이라는 하나의 법칙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목기(木氣)를 많이 잡힌 사람은 어질고 금기(金氣)를 많이 잡힌

사람은 의롭고 수기를 많이 잡힌 사람은 음탕해 진다. 여기에는 기에 접하는 방식에는 사람이 직접 접하는 방법과 부모의 유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하는 방법이 있다.

#### 4. 風水의 四象體系

풍수는 종교는 아니지만 운명론에 입각한 아주 낮은 사상의 근거로써 사회성이 결여되었다. 風水의 目的은 人生을 天地의 힘에 맡기어 發達과 幸福을 求하고자 함에 있는데 具體的으로 말하면

첫째 住宅을 吉地에 세워서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幸福을 받게 하는 것과 둘째 先祖의 墓를 吉地에 묻어 그의 子孫의 繁榮을 꾀하는것 위의 두가지가 있다.

즉 風水住居法으로 말하면 같은 토양의 南面한 언덕에 세운 甲乙 兩家(또는 부락)가 같은 運命을 갖게되지 않고 甲은 繁盛하고 乙은 衰亡하였다면 그 이유는 甲乙 兩家の 집터 및 周圍의 地勢의 吉凶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墓地도 역시 地相이 善惡에 의하여 葬者가 吉한 氣를 받고 그 後孫도 그 先祖의 影響을 받아 幸 혹은 不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참된 풍수가는 우주와 사시에 합하여 길흉을 보려한다 그래서 땅이나 하늘이나 하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선악을 논하려 하지 않는다. 전체의 우주사상적 근거와 조화에서 길과 흉을 보고 판단한다.

## 第2節 風水와 陰陽

### 1. 總說

풍수학은 생기와 감응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 학문이다.

생기는 단순하게 토양이나 일조(日照)의 조건에 따라 소장(消長)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음양과 오행(二五精행)으로서만 말 할 수가 있는 형이상

학적인 조건이다. 또 감응의 법칙은 도리(道理)로서만 입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풍수학은 용.혈.사.수의 음양충화(冲和 : 음과의 짝지을 관계)와 생기의 순화를 따지는 학문이다. 토양의 산도나 일조시간의 길고 짧음, 그리고 수분의 함유율등 이른바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한계가 있다. 음양의 해석은 이렇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이나 천동지정(天動地正)이란 말에서 볼수 있듯이 원(圓)과 동(動)은 양(陽)에 속하고 방정은 음(陰)에 속한다. 이에 따라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 음이 되고 수는 통하여 흐르니 양이 된다. 그러나 음과 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산을 음산과 양산으로 구분하고 물 또한 음수와 양수로 나뉜다. 산의 음양 구분은 음강양유(陰剛陽柔)다. 높고 험한것은 음이 되고 평평하고 유순한 것은 양이 된다. 즉, 뾰족 하거나 경사가 급한것은 음산이다.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하며 넓은 것은 양산이다. 여기서 주위할것은 음양이란 기적측면이고 생김새에 치중하여 말할때는 뾰족하고 높고 험한 산을 웅(雄)이라고 하며 평평하고 널찍하여 안정된 산을 자라고 한다는 점이다. 즉, 자음과 음양의 기나 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밖에도 양승음감(陽昇陰감)의 음양  
간양지음(干陽支陰)의 음양  
팔괘본체(八卦本體)의 음양  
정음정량(鄭陰淨陽)의 음양 등의 구별이 있다.

풍수학에서는 형(形)은 중이요 이(理)는 화(和)라고 한다. 중화는 체용(體用)이다. 중은 풍수의 뿌리이고 화는 풍수의 묘용(妙用)이다.

## 2. 易卦

易은 자연의 운행질서 및 삼라만상의 근본원리를 64괘라고 하는 틀 속에 넣은 것이다. 우주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상호작용을 한다.

天의 기에 따라 地의 품세가 이루어지고 또한 地의 기에 따라서 천의 형

상도 바꾸어 지체 된다.

즉, 천의 운행이 지에 영향을 주고, 지의 기는 천에 영향을 주어서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순환을 이어가고 그 사이에 사람으로 대표되는 삼라만상이 천지의 교감에 영향을 받고 다시 천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상호 교감작용이라고 한다. 이교감작용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道이다.

다시말해서 상관성을 갖고 순환하며 변화하는 것이 道이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一陰一陽之謂道 라고 하여 낮이가면 밤이오고 밤이 세면 낮이 되는 이치가 道이다. 그리하여 역에는 翻譯, 不易, 互易, 簡易 의 뜻이 있음.

### 3. 三易

주역 계사전에 태극이 있어 兩義를 생하고 양의가 四象을 생하며 사상이 八卦를 成한다고 했다. 이는 곧 一每生二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말이다. 태극이전에는 천지도 없고 천지가 없으니 또한 만물이 있을 수가 없어 오직 一理가 있었을 뿐이다. 이일 리가 곧 태극이요 태극이 곧 理氣의 근원이니 천지만상이 태극으로부터 化生하고 태극으로 반본(근원으로 돌아감) 한다.

풍수도 이기의 근원인 태극에 바탕을 두고 산천의 생성과 반복을 추구하며 길흉을 정하는 법이다. 만물의 근원인 태극이 한번動 한 한번 精한것이 양의(兩儀)이다. 이음과 양이 서로 교합하는 것을 총화라 하여 사상을 생하고 사상은 팔괘를 이룬다. 팔괘가 거듭하여 64괘가 된다.

#### 1) 태극(太極)

태극은 삼라만상의 본원으로서 나오고 돌아가는 것이 모두 태극에 연유된다. 또한 태극에는 만물을 함유한다는 공간적 의미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시간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다.

태자(太字)는 ‘일에서 이(人)가 생기고 그이가 음양과 교합하여 또 다

른 하나를 낳는다' 는 형상을 보여준다.

극(極)은 목(木)이 빠르게 분열하고 상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태극설은 일원론적(一元論的) 삼원론(三原論) 으로서 만상은 태극의 씨앗을 받아 생명활동을 하고 소멸되어 태극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태극은 만물의부모이며 만물은 태극의 소생으로서 돌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돌인 체용(體用)일뿐이다. 이렇게 보면 태극이 생음양(生陰陽) 하고 음양이 함태극(含太極) 한다.

### ① 공간적의미

극이 없는 것이 태극이다 이것은 특이 없음을 뜻한다.

### ② 시간적의미

역서에서는 '잠어순식(暫於瞬息)과 미어동정(微於動靜)에 막불괘지상언(莫不掛之像焉) 하며 막불유효지언(莫不有效之儀焉)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태극은 무한의 공간성과 무량의 시간성을 의미한다.

## 2) 양의(兩儀)

양의의 의미는 두가지의 양태라는 뜻이다. 태극이 일양지(一陽之) 하여 변(拚)하고 일음지(一陰之)하여 화(化)하는 시간성과 음과 양으로 나뉘었다는 공간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양과 음으로 두가지 양태로서 운동을 하는 데 양인 경청(輕淸)한 기는 위로 올라가 천(天)의 체를 이루고 음인 중탁(重濁)한 기는 안으로 엉겨 지(地)의 형(形)을 이뤄 천지가 조판(肇判)되었다. 음이 변하여 양이 되고 양이 화하여 음(陰)이되는 순환과정이 낮과 밤과 춘화추동이며 근묘화실(根苗花實)이다.

## 3) 사상(四象)

태극이 일변(一邊)하여 생한 것이 양의요 재변(再變)하여 생한 것이 사상이다.

양의(陽義)를 본으로 하여 양으로 분화된 것이 태양이고, 음으로 분화한

것이 소음이다. 음의(陰儀)를 체로하여 음으로 분화된 것이 태음이고 양으로 분리한것이소양이다. 양의는 두가지양태인데 비해 사상은 양의보다 한단계 더 구체화된 상이다.

천(天)의 일원성신과 지(地)의 산천초목과 인(人)의 이목구비가 사상의 이치인것이다. 양을 바탕으로 양으로 작용함은 태양이고, 양을 바탕으로 하되 음으로 작용함은 소음이다. 음을 바탕으로 하여 음으로 작용함은 태음이고 음을 바탕으로 하여 양으로 작용함이 소양이다. 그 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태알 - 전실하고 강건하다.

태음 - 공허하고 유순하다.

소음 - 내실외허하여 성장한다.

소양 - 내외외실하니 수축(收縮)한다. 그러므로 소음은 봄이고 아침이며, 태양은 여름이고 낮이며, 소양은 가을이고 저녁이며, 태음은 겨울이고 밤이다.

#### 4) 팔괘(八卦)

태극이 일변하여 양의가 되고 태극이 재변하여 사상이 된다. 또한 태극이 삼변을 이룬 것이 팔괘이다. 분화는 일매상이나 과정은 삼변으로 완성된다. 이것을 삼재의법칙 이라고 한다. 따라서 역은 음양과 삼재를 기본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삼재는 천(天),지(地),인(人)이며 만성을 삼재로 대칭한다. 팔괘의 세효는 삼재의 원리에 따라서 정해진다. 생성의 차서는 천, 지, 인 으로 나타나고 현상의 위치(位次)는 용이 된다. 또 차서는 시간적 의미이고 취치는 공간적의미를 담고 있다.

##### ①팔괘의 명칭과 상

1에서 8까지는 생명의 순서이고 건(乾), 태(兌), 곤(坤)은 괘의 이름이고 천, 택(擇) 는 의미를 뜻한다. 또 건삼련(乾三連) 등은 괘의 모양을 일컫는다.

건삼련(乾三連) 천(天) : ☰

태상절(兌上絶) 택(澤) : ☱☱  
 이허중(離虛中) 화(火) : ☲☲  
 진하련(震下連) 설(雪) : ☳☳  
 손하절(巽下絶) 풍(風) : ☴☴  
 감중련(坎中連) 수(水) : ☵☵  
 간상련(艮上連) 산(山) : ☶☶  
 곤삼절(坤三絶) 지(地) : ☷☷

② 속성

팔괘를 사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생성의 원인에 따르는 방법과 현상에 의한 방법으로 나눈다. 첫째, 원인에 따른 분류는 태음에서 분화된 괘가 곤, 간이고 소양에서 분화된 괘가 감, 손이다. 소음에서 분화된 괘가 진, 이 이고 태양에서 분화된 괘가 건, 태 이다. 둘째, 현상에 의한 분류는 건은 양이 셋이므로 9(3\*3)로서 노양(老陽)이다. 곤은 음이 셋이므로 6(2\*3)으로서 노음(老陰)이다. 진, 감, 간은 일양이음 이 분리 7(3+2\*2)로서 소양 이내 8(2+3\*2)로서 소음(少陰)에 속한다.

### 第3節 灣頭形勢

#### 1. 形態에 따른 影響

萬物은 각각의 獨特한 氣를 갖고 있다. 이 氣는 주위의 다른 氣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갖고 있고 이러한 각 物體의 氣는 그 形態로 把握된다. 風水에서는 이 形態를 중요시 여긴다.

陰陽五行說에서 萬物은 一元氣에서 발생하여 이것이 變化하여 生長 또는 消滅하는데 이 氣가 化하여 物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氣의 物化된 象을 形이라 하는 고로 한 物體가 어떤 氣를 갖고 있는가는 바로 그 물체의 形으로 알 수가 있다. 즉 木氣가 흐르는 山의 形은 똑바로 선 나무의 줄기와 같은 形을 이루고 있고 둥그런 종과 같은 山은 金氣

를 흐르고 있다. 또한 뾰족한 불꽃형태를 갖춘 火山은 火氣를 발산하고 있다. 이렇듯 한 물체가 갖는 형태는 그와 같은 氣를 갖는다는 觀念은 原始時代의 類物信仰과도 일치하고 있다. 즉 男根의 형태의 돌은 男根과 同一한 신비력을 發揮하고 女陰과 같은 岩間은 出産의 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서로 다른 두개의 物體 즉 氣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상대편의 氣의 影響을 받게 된다. 이러한 氣의 影響을 감응이라 하고 이 感應은 두 氣의 種類에 따라 相生하거나 相克하게 된다. 新春에 太陽의 氣에 의하여 山野의 草木이 만발하게 되는 것도 바로 氣의 感應때문이다. 風水에서도 山水의 氣가 바로 사람에게 感應되어 人生의 운명을 左右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風水에서는 山水의 氣를 把握하기 위하여 그 山水의 形態를 세밀히 조사하고 그 山水의 氣가 그곳의 사람에게 여하한 感應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를 예정하기 때문에 山水의 형태를 매우 중요시하게 된다.<sup>3)</sup>

## 2.吉凶의 形態

風水에서는 땅의 形態로부터 그곳의 氣를 把握하여 그 氣가 그곳의 사람들에게 미칠 吉凶禍福을 예지하는 기술인 때문에 땅의 형태와 그에 따른 影響을 나타낸 대표적인 기록등을 볼 수가 있다.

「大富之地 圓峯金櫃，貝寶沓來 如川之至. 貧賤之地，亂如散蟻」라 하고 있어 극히 常識的인 判斷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금낭경에서 山水의 유형에 따른 吉凶禍福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形如仰刀：凶禍伏逃

形如臥刀：夷逼

形如橫凡：孫滅子死

形如履舟：女病男囚

3) 박 시익, 전계서, pp.23-29

形如投散：百豪昏亂  
 形如亂衣：妬如淫妻  
 形如冠：永昌且  
 形如覆釜：其嶺可富  
 形如負房：王候屈起  
 形如門戶：貴不可露  
 形如燕：昨土分芽  
 形如側：九棘三槐  
 勢如萬長白天：出王者  
 勢如巨浪：出千乘  
 勢如降龍，出三公  
 勢如雲徒壁立雙峯，翰詞鋒  
 勢如重茂草喬木，開國建國  
 勢如驚蛇屈曲 滅國亡  
 勢如戈矛，兵死刑囚  
 勢如流水，生人皆鬼

또한 形과 勢의 관계에 대해서는 「夫勢無形順者吉，形無勢逆者凶，勢凶形吉，百福希一，勢吉形凶，禍不施日」라고 하여 勢와 形이 모두 順한 것을 吉, 形과 勢가 克한 것은 凶, 勢는 凶하나 形이 吉한 경우에는 百福中 一福만 맞게되고 勢吉하더라도 形이 凶하면 福가 끊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勢란 來龍을 말한 것이고 形을 穴의 주위의 상태를 말한 것으로 形을 勢보다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山의 形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山肥人肥, 山瘦人飢, 山清人貴, 山破人悲, 山?人聚, 山走人離, 山長人勇, 山縮人低, 山明人智, 山暗人迷, 山順人孝, 山背人欺라고 했으며 사람의 清濁, 美醜, 貧富, 貴賤, 夭壽 子孫의 多少등은 모두 그 땅의 形에 의하여 左右된다고 하였다.

### 3. 形態 種類

風水에 있어서 山의 形態는 한 개의 山의 單獨的인 形態를 말할때도 있고 한 穴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여러 山의 綜合的인 形態를 分類하여 말하기도 한다.

山의 가장 根本的인 形態는 五星으로 이미 앞장에서 記錄하였고 이 五星의 變化된 形態중에서 가장 代表的인 形態를 들면 다음과 같다.

貴人 : 木星을 貴人으로 본다. 이것이 두개 있을 경우 雙薦貴人, 三立일 경우에는 三台貴人이라 한다.

太陽, 太陰, 金星으로 圓形에 缺陷이 없이 등그런 형태를 太陽이라 하고 圓에 결합이 있어서 月과 같은 형을 太陰이라 한다.

將軍, 木體에 金帶를 한 것을 將軍이라 한다.

仙人舞神 : 主山이 木星이고 전면에 案이 가로 놓인 형을 말함.

玉女擊鼓: 主山木星이고 靑龍 白虎의 끝에 鼓가 있고 앞에는 舞童이 있는 형을 말함.

武士 : 金頭에 火帶를 하고 돌이 있는 형태.

仙人 : 木星帶火를 말함.

胡僧 : 木星帶水를 말함.

金 : 高山帶金을 말함.

玉屏 : 端正한 土山의 壁과 같이 서있는 형태를 말함.

天倉 : 土石이 正確히 4각형인 것을말함.

天馬 : 金山에 연결되어 火山의 帶를 둘러싼것.

帳 : 山水가 옆으로 길게 둘러쳐진 것.

玉帶 : 水星이 둥글게 둘러 싸인것.

旗山 : 木星 火星의 연결체로서 四五峯의 높고 낮은 봉우리가 마치 出陣하는 旗와 같은것.

浮雲 : 木星이 연결되어서 그 형태의 일어남이 浮雲과 같은것.

佯雲 : 木星이 연속적으로 촘촘히 일어난것.

天梯：木星이 連起하고 高低가 계단 같은것.

庫：金星을 말함.

鍾釜：金星을 말함 이것이 三列이면 三太라 칭함.

獅：金頭 土身 火尾를 말함

虎：金頭 土身

이상의 형태를 그림으로 表示하면 위와 같다.

#### 4. 形態의 種類(복합형)

땅의 한 穴 혹은 局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의 여러 砂가 複合되어 이루어진 지세는 형태에 따라 고유한 名稱을 붙여서 쓰고 있다.

이들의 名稱과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金鷄抱卵形：金鷄는 天鷄로 夜半에 아침이 돌아옴을 제일 먼저 알려 주는 새로 金鷄의 形은 上吉로 친다. 또한 天鷄는 한번 알을 품으면 20여 개의 알을 낳는 고로 이것 또한 大吉이다. 따라서 이러한 形의 所應은 만인의 지도자가 되는 영웅이 나거나 대대로 子孫의 번창이 매우 좋게 된다.

②臥牛形：소는 성질이 溫順하면서도 剛하다. 소는 옆으로 누워서도 되 새김을 하여 먹고 있다. 따라서 소의 형에는 案山에 穀草形의 砂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더욱 吉하게 여긴다. 이러한 地形의 所應은 大人을 낳게 하고 子孫代代로 누워서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幸福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소는 새끼를 한마리씩 밖에는 낳지 못함으로 金계포란형에 비하여 子孫이 적은 것이 흠이라 하겠다. 臥牛形에 墓를 정하는 곳은 角, 鼻, 尾, 乳, 眉間 등이 있고 특히 物을 實하는 威力이 있고 鼻는 雲心賦로 전하여 지는 바와 같이 物을 鑑別하는 機官이며 尾는 몸을 귀찮게 하는 파리 모기등을 쫓아내는 기능이 있고 乳는 송아지를 키우며 眉間은 싸움을 하는 경우에 적을 맞아 들이는 곳이며 강을 건널때는 이곳만은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곳으로 이 角, 鼻, 尾, 乳의 위치를 좋게 여긴다.

- ③玉女彈琴形：玉女는 遊藝에 뛰어나고 그 모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彈琴까지 하는 것은 반듯이 경사스런 조짐을 뜻한다. 이 地形의 所應은 뛰어난 人材나 登科者 富者 혹은 玉女를 낳게 한다.
- ④玉女散髮形：이 形은 案山에 빗을 갖고 右에는 거울을 左에는 粉을 들른 것을 더욱 좋게 여긴다. 散髮은 盛粧하기 위한 준비로 단정한 모습을 予期케 하는 까닭에 이 形의 所應은 못사람들에게 素望의 對象이 되는 人才를 配出케 한다.
- ⑤龍奔珠形：龍은 口에 구슬을 물으면 비로서 昇天하게 된다. 따라서 龍이 구슬을 얻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 지형의 所應은 大官을 배출한다.
- ⑥産狗形：개는 多産함으로 이 지형의 所應은 容易하게 子孫을 繁榮하게 하는 吉地로 친다.
- ⑦梅花落地形：이 꽃은 高潔하고 이 落花는 그의 香氣를 四方에 널리 퍼지게 함으로 크게 子孫이 發福케 한다.
- ⑧桃花落地形：이 꽃은 땅에 떨어지면 사람의 愛惜을 禁치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 形에 人葬하면 만인에 사랑을 받는 人才를 낳게한다.
- ⑨龜尾形：거북은 天理를 能히 아는 靈物로 陰陽의 調和를 自由롭게 하는 힘이 있다. 거북의 꼬리는 五行의 精氣가 모여서 發露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 形은 吉地로 富貴와 繁榮을 招來케 한다.
- ⑩濁鹿飲水形：어느것도 穴前에 蓮池있는 것을 要한다. 연못이 없을 경우에는 못을 파서 물을 채워 연못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⑪老鼠下田形：이형은 穴前에 粟糧이나 庫輿形의 砂가 要하다. 이 砂가 없으면 쥐가 숨을 장소를 갖지 못하여 불안케 된다. 쥐는 본성이 번식력이 강한 까닭이 이 地形은 子孫을 繁盛케 한다.
- ⑫三女同坐形：三女는 母 妻 딸의 三女를 말하는데 이 形은 穴前에 3개의 童子案이 있으면 一家和合하고 子孫이 繁盛하는 吉地이고 三童子의 砂가 없으면 그 形은 三陰都會의 地라 불리우는 곳으로 이 所應은 無子婦, 寡婦를 만들게 하는 亡地이다.

⑬飛蛾附壁形：山の靑壁上에 제비가 붙어 있는 것은 모양이 매우 아름답다. 穴前에 花地形이 있고 左에 東風屨이 있으면 더욱 길지로 된다.

⑭巳頭形：

이 形은 前案에 開具리형의 砂가 있으면 더욱 길하게 여긴다. 이것은 장차 뱀이 개구리를 먹으려는 象으로 發福을 의심하지 않는다.

⑮蠶頭形：

이 形은 앞에 桑形의 이나 桑林의 案이 있으면吉하다. 누에는 뽕나무를 먹고 사는 고로 뽕나무밭이 있으면 오직 이것을 먹으려고만 전념한다. 따라서 이 形은 運氣를 旺盛케 하고 發福케 한다.<sup>4)</sup>

## 5. 風水의 裨補

땅의 形勢가 어느面에서 먼저 完璧하게 좋은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러한 땅은 人德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만 하늘이 宿命的으로 附與한다고 한다. 따라서 一部の 不足한 地形을 人爲的으로 보충하여 그 소용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方法으로 탑을 세운다던가 절을 짓는다던가 기타의 方法으로 地勢를 裨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들의 대표적인 것을 들면 아래와 같다.

① 皇龍寺의 九層塔：新羅 善德王때 國家의 安全과 三國統一을 위해 세워졌다.

② 安東의 古刹古塔：慶北 安東에 九層塔이 있는데 이 塔은 安東의 邑이 南面하여 洛東江을 面하여 열려져 있어서 이로부터 邑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③ 忠州의 中央塔：忠淸北道 忠州邑內에 九層石塔이 있다. 이 塔은 新

---

4) 박 시익, 전게서, p.35

羅 元聖王 十二年에 세워진 塔으로 建設 유래는 다음과 같다. 즉 이 땅이 당시 지리적으로 全國土의 中央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中央의 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도 하여 당시 忠州의 땅에 王氣가 충천하여 그 王氣를 抑壓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이상의 두가지 유래가 같지는 않으나 모두 鎮壓說에 의하여 세워진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 第3章 風水地理와 建築 및 都市와의 關係

### 第1節 漢陽天道와 風水地理

漢陽定都과정은 거의 풍수설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즉, 무학대사의 전설이나 정도전과의 논쟁에 관한 전설이 定都 과정을 설명하는 정설로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正史인 왕조실록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조선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창건된 왕조이며 유교사상은 풍수사상을 배척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잘 알려진 전설들이 漢陽定都의 정설로서 타당성을 갖는지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의견대립은 儒者들과 術士들 사이에 있었다. 도읍지 선정은 본래 書雲觀員들의 소관이었으나 그들의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의견이 자주 일관성을 잃어 국왕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조정의 사대부 재상들은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풍수지리설의 한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한양 정도는 사실상 풍수지리설보다도 사대부들의 유가적 식견에 의해 결정이 되다시피 하였다. 고려말 공양왕은 "천도를 하지 않으면 廢君臣 즉 정변이 일어난다"는 당시 떠돌고 있던 秘錄의 참설에 따라 천도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다. 이성계는 역성혁명이후 이러한 사실들을 크게 염두에 두어 남경천도의 의지를 갖게된다. 따라서 천도의 배경에는 도참설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계층간의 견해차이에서 서운관원들이 일관성있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경에 머물고자 하는 "世家大族"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천도 논의의 주도권을 신진사대부들의 儒家的 견해에 넘기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대표적인 견해로 정도전의 의견을 들 수 있는데 정도전은 교통과 면적 등을 요건으로 들고 '사람에게 治亂이 있지 땅에 성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제왕의 도읍터는 자연이 정해진 곳이 있기 때문에 술수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하여 儒者로서의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漕運·道里 등 인  
 사 중심의 유학적 지리관이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왕자의  
 난으로 개경으로 還都한 이후 태종 때의 2차 천도 과정에서는 술수 지  
 리서들의 사용을 금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으며 결국, 도참설에 따  
 라 毋岳을 주장하는 의견들을 누르고 한양천도를 단행하였다. 결국 조선  
 초까지 전래의 풍수설·풍수도참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전  
 래의 풍수지리설을 담당하는 서운관의 지관들은 定都의 대사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사대부를 대표하는 재상들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논지가 확연했다. 한양의 산수에 대한 설명에서 풍수  
 가의 용어가 사라진 것은 아니나 도읍으로서의 타당성을 논하는 기준이  
 조운과 道里 등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된 것은 분명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유학적 지리관의 출발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조선초기 관찬 지리서를 대표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京都에 대한 지세론만 보더라도 음양 술수적 요소는 전혀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는 풍수사상이 사회운영 원리로서의 위치를 잃  
 어버렸으며 당시의 주도세력이었던 사대부들의 유학적 지리관에 비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第2節 風水地理와 住居 立地의 關係

### 1. 意 義

산 사람이 사는 住宅이나 마을, 中小 大都市 등을 다루는 風水를 陽宅  
 또는 陽基 風水라고 하는 반면 죽은 사람이 거주하게 될 집(무덤, 태실,  
 부도)을 陰宅이라 부른다.

風水地理의 本質이 天地의 生氣를 땅에 의해 받아서 人生의 幸福을 營爲

코자 하는 것임으로 이런 점에서 陰宅이나 住居 立地를 정하는 陽宅도 同一하다.

여기서 陽宅이란 生人の 住宅만을 말함에 비하여 陽基라고 하면 住宅뿐만 아니라 사람의 使用에 必要한 各種 建物도 모두 包含한 큰 範圍의 뜻을 말한다. 陽基는 크게는 一國家를 말할 수도 있으며 한 都市 또는 邑 그리고 一家의 住宅을 말하기도 한다.

陽基에 있어서는 그 땅의 形勢가 陰陽이 調和를 이루고 五行이 相生하여 生氣가 充滿한 곳이 吉地인 것처럼 藏風, 得水, 四砂方位 등 陰宅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단지 陽基는 陰宅에 비해서 그 性質上 산골짜기 사이의 小規模의 땅으로는 不可能하며, 상당히 넓은 土地와 生活에 必要한 資料의 供給이 容易한 땅이 아니면 안 된다.

陽基는 하나의 家屋을 짓기 위해서 찾기보다는 百家千家의 幸福을 위한 곳이 上位의 大地라고 한다.

陰宅은 땅 속에 흘러 모이는 生氣를 直接 받는데 반해서, 陽基는 生氣 있는 땅 위에 住宅을 지어서 間接적으로 生氣를 享有하는 것이다.

陽基는 陰宅보다 地形物의 形勢에 重大한 意義를 認定한다. 風水는 生氣가 모이는 局穴과 그 周邊 形勢에 重點을 두고, 그 形勢의 善惡順逆이 큰 影響을 미친다. 다만, 陰宅은 직접 땅 속의 生氣로부터의 影響을, 陽基는 形勢의 影響을 重視한다. 즉, 陽基는 땅 속의 生氣와는 間接的이며, 地上의 形勢 類型과는 直接으로 그 氣를 享有한다. 마치 陰宅이 地上의 形勢로부터 享有하는 氣의 影響은 間接的이고, 땅 속의 生氣와는 直接的인 것과 같다. 따라서 陰宅이 땅 속의 生氣에 重點을 두는 反面, 陽氣는 이 地上의 形勢에 한층 더 比重을 둔다.

住宅 風水나 마을 風水는 거기에 산 사람이 直接 影響을 받지만, 陰宅 風水는 그 後孫이 影響을 받기 때문에 住宅이나 마을 風水의 比重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sup>5)</sup>

---

5) 박 시익, 전계서, pp.29-39

집터나 마을 터를 정하는 것과 무덤 자리를 정하는 것은 同一한 原則에 立脚한다. 그러나 묘 터를 정하는 것과 집터를 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묘 터에서는 龍(산줄기, 脈)과 穴(무덤이 쓰여질 자리)을 매우 重視한다. 그러나 집터나 마을에서는 龍과 穴 이외에 周邊을 에워싸고 있는 산들과 마을을 貫通하는 물이나 마을 앞에 흐르는 물 또한 重要하다. 특히 산들이 四方에서 포근하게 에워싸서 心理적으로나 生理적으로 安定感和 均衡感を 줄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風水에서는 自然과 人間을 物質과 生物과의 關係로 보는 것이 아니고 自然 즉 山野 및 水가 모두 生動하며 사람에게 影響을 주는 것은 마치 이들 自然은 巨大한 힘을 갖춘 사람 以上の 生物로서 이 自然에 따라 사람의 運命도 左右하게 된다고 믿어 建物보다는 自然을 重要視하고 사람보다도 自然을 무섭게 여겼다.

이와 같이 自然속의 새로운 運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風水地理에서는 더욱 重要視하게 된다.

## 2. 住居 立地の 環境的 條件

### 1) 傳統的 住居 立地 條件

傳統的인 住居 立地 條件은 氣候, 地形, 물, 土壤의 肥沃度 등의 自然的 條件과 交通, 防禦, 資源, 慣習 등의 社會的 條件이 있다. 우리나라의 傳統的 住居 立地는 山地가 많은 地形 條件과 風水 地理說 등의 影響으로 背山 臨水 地域에 立地하였다.

#### ① 地形

風水說에서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背山 臨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風水의 影響으로 傳統的인 住居 立地는 산이나 구릉의 陽地 바른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곳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의 찬 北西風을 막아 주고 南西面은 겨울에 日照量

이 많아 따뜻하고 앞의 河川 流域에는 넓은 農耕地가 있어 主産業이었던 農業에 유리하다.

反面에 큰 강 沿岸의 넓은 들은 土地가 肥沃하고 灌溉 用水가 豊富하겠지만 洪水가 빈번하여 살기에 適合하지 않아 이러한 곳에서는 自然 堤防을 따라 住居地가 形成되었다.

平野 地域에 비해 自然 條件이 不利한 山地에서는 農耕地 確保가 有利하고 用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河川의 溪谷을 따라 分布하거나 傾斜가 圓滿하고 넓은 耕地를 마련할 수 있는 高位 平坦面에 立地하였다.

## ② 물

生活 用水의 確保는 住居 立地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었다. 물이 不足한 地域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住居 立地가 定해졌다. 또한 河川이 伏流하여 地表水가 不足한 곳에서는 地下水가 샘으로 솟아나는 곳에 立地하였고, 汎濫原이나 三角洲에서는 用水를 구하기는 쉬우나 浸水 危險이 크기 때문에 排水가 良好하며 고도가 周邊보다 약간 높아 洪水時 浸水 被害가 적은 自然 堤防이나 人工的으로 흙을 쌓아올린 곳에 立地하였다.

## ③ 交通

交通은 住居 立地의 重要한 條件이 되는데 이는 接近성과 物資 流通에 有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住居地의 成長과 衰退는 交通 手段의 時代的 發達 過程과 關係가 깊다. 朝鮮時代에는 驛院 등의 交通 要地나 河川 沿岸의 나루터에 住居地가 立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鐵道, 高速 道路 등 陸上 交通의 要地나 船舶이 드나드는 海岸 地域이 住居地로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

## ④ 防禦

우리 나라는 侵略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防禦에 有利한 곳에 過去부터

防禦 機能을 가진 住居地가 發達했다. 이는 風水 地理說에서 이야기하는 背山 臨水 地域이 뒤로는 산이 적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강이 가로막혀있어 自然的인 防禦 地形이 되는 것이다.

自然的인 防禦 機能이 脆弱한 곳에서는 人爲的으로 城을 쌓아 敵의 侵略에 對備하였는데 옛날의 都邑地에는 大部分 城이 築城되었다.

#### ⑤ 經濟 活動(租稅 制度)

都邑地에 隣接한 河川은 地方의 租稅米를 運搬하던 漕運制度和 더불어 貨物 輸送에 重要的 役割을 하였다. 옛날에는 陸路 交通에 많은 不便이 있었기 때문에 海上을 利用한 經濟 活動이 활발하였던 것이다.

## 2) 現代的 住居 立地 條件

傳統的 住居 立地에 基盤을 두고 오랜 동안 살아왔던 現代人들은 急速度로 發展한 科學文明의 時代에 살고 있다.

過去의 農業 中心 社會에서 産業化 過程을 거치면서 都市의 人口 集中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러한 現象은 大都市의 出現과 함께 住宅問題와 交通問題 등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技術이 進歩하고 社會가 發達되면서 住居 立地 問題도 自然的 條件보다는 社會·經濟的 條件이 더 重視하게 되었다.

住居 立地 條件이 滿足스럽지 못하더라도 地形을 바꾸고 道路를 開設하는 등 人爲的으로 立地 條件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다.

人口가 密集되어 住宅需要가 큰 곳에서는 大單位 宅地로 쓸만한 土地의 供給 可能性과 價格, 그리고 主要 交通路의 接近性이 重視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都市의 變두리는 未開發地가 많고 地價가 相對的으로 싸기 때문에 住宅 團地 開發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現代 社會에서는 住居 立地에 관한 決定에서 個人보다는 政府와 民間住宅 開發 業體 등의 役割이 더 커지고 있다. 現代 社會에서는 住民이 스

스로 집을 짓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을 購入하거나 세 들어 사는 경우가 普遍的이므로 個人의 立場에서 보면 住居 立地란 住居의 選擇 問題라고도 말 할 수 있다.

現代 社會의 住居 選擇 條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住宅의 價格

個人의 立場에서 보면 住宅의 價格 問題가 住居地를 決定하는데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都市의 人口 集中現象이 深化됨에 따라 都市에서의 住宅 不足現象은 一般化되고 이에 따라 住宅 價格의 上昇을 초래하여 經濟力 水準에 따라 住宅을 선택하게 된다.

交通이 便利하고 住居 環境이 良好한 곳에서는 經濟力 水準이 높은 사람들이 居住하게 되고 經濟力 水準이 낮은 사람들은 住宅 價格이 싼 곳을 찾아 住居地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現象은 大都市에서 低所得層이 密集한 곳에서는 住居 環境이 劣惡한 山 稜線이나 侵水被害가 큰 地域에서 居住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風水地理 理論上 住居 立地로 回避했던 地域이다.

### ② 일터와의 接近性

傳統的 社會에서는 都市나 農村을 莫論하고 일터와 住居는 一致되어 있거나 近接되어 있었다. 産業化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生産者들의 勞動 形態와 勞動 時間 그리고 家族 勞動의 必要性和 零細한 經濟力 등의 理由로 일터와 住居 空間의 結合은 必然的이었다.

現代社會에서는 거의 모든 都市에서 일하는 地域과 居住하는 地域을 나누어 놓았고 用度地域化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法的 規制가 짜여져 있다. 이러한 理由는 經濟活動을 集積하는 편이 分散되어 있는 편보다 유리하다는 점과 經濟活動이 住居地의 安全과 閑寂함을 깨뜨릴 危險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危險을 分離함으로써 미리 豫防해 둔다는 점이

다.

이러한 條件에서 住居地를 選擇하는 경우 일터와의 接近性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現象은 高所得層보다는 低所得層에서 重視하는 傾向이 크다.

住居地와 일터의 接近性이 交通便宜 정도에 따라 支出하게 되는 費用이 다르기 때문이다.

### ③ 住居 環境

現代社會 生活에서 住居 環境인 學敎, 公園, 商街 등 便益 施設의 近接與否와 먼지와 騒音 및 惡臭의 深刻性 程度인 公害問題, 住居 生活의 安全 등도 居住地를 決定하는 데 重要的 條件이 된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現象은 低所得層보다는 高所得層에서 重視하는 傾向이 크다.

經濟적으로 餘裕를 가지고 있는 階層에서는 보다 쾌적한 環境에서 生活함으로써 健康한 삶과 幸福을 追求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住居 環境問題 중 우리나라 경우 子女의 敎育 問題가 차지하는 比重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는 名門 學敎가 있는 學群 地域의 住宅價格이 相對적으로 다른 地域보다 높게 形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정된 住宅에 비하여 需要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現象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名門 學敎가 所在하고 있는 地域은 風水地理 理論을 適用하여 보면 明堂 條件을 갖추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는데 서울 大學校가 위치했던 동숭동, 연건동 등과 연세 大學校와 이화 女子大學校의 신촌 일대, 高麗 大學校가 위치한 안암동 등은 朝鮮初期 부터 明堂자리로 거론되었던 地域으로 明堂의 條件을 두루 갖추고 있다.

### ④ 이웃의 社會·經濟的 地位

住居地를 決定하는데 있어 이웃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重要的 變數가

되고 있는데 이는 社會·經濟的으로 비슷한 水準의 사람들이 모여 居住地를 形成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住宅 價格面에서 뿐만 아니라 住居 環境面에서도 居住者의 所得 水準에 맞추어 住居地를 選擇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

風水地理의 地勢分析 方法을 適用해보면 高所得階層이 居住하고 地域은 明堂의 條件을 갖추고 있는 反面, 低所得層이 居住하고 있는 地域은 明堂의 條件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⑤ 住居地의 發展的 展望

現代社會 生活에서는 經濟的 富가 차지하는 比重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經濟力이 社會的인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基本 前提가 되기 때문이다.

住居地의 發展的 展望은 不動產 投機를 부추길 수 있는 한 要因이 되기도 하지만 住宅의 選擇 問題가 經濟的으로 富를 創出할 수 있는 한 手段으로써 利用되고 있는 우리 나라 境遇 不動產의 所有慾이 相對的으로 강한 편이다.

住居地에 대한 將來의 展望이 發展的인 경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住宅 價格이 上昇하게 되어 成長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境遇 사람들이 居住地를 離脫하게 됨에 따라 價格은 하락하게 되고 衰退하게 된다.

## 第3節 風水地理와 都市 建築의 立地

### 1. 傳統的 都邑 風水

사람이 모여서 사는 地域에 대한 風水를 都邑 風水라 한다.

옛날의 都邑에는 州·府·縣·郡·里·洞 등 規模의 大小가 있으나 모두 集團 陽基인 이상 모두를 都邑으로 보아 風水를 考察한다. 이 集團的 陽基는 個人的 陽基과 類似하다. 個人的 陽基와 다른 것이 있는 듯 생각되

지만 規模를 擴大하면 集團的 陽基가 되니 風水學으로는 集團 陽基나 個人 陽基나 같다. 다만 集團 陽基는 個人 陽基와 달라서 여러 사람의 群居地이므로 個人 陽基보다는 그 移動이 어렵다. 가령 移動이 可能하다 해도 單 곳에 새로운 住居地를 選定하는 일이 個人 陽基처럼 한 사람의 意見으로 決定될 수가 없다.

따라서 部落의 風水的 效果가 不吉하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 이것이 個人 陽基와 다른 것이다. 그 대신 碑補를 하여 移動이 容易하지 아니한 缺陷을 補充한다. 즉, 그 땅의 地氣의 缺陷을 어떤 人爲的 施設에 의해서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個人的인 陽基에서도 그 家族數가 불어서 單 곳을 옮기는 일이 容易하지 않을 때면 새 吉地를 고르기보다는 碑補로써 舊地의 地氣를 補益코자 하는 境遇도 있으므로 碑補風水는 꼭 集團 陽氣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다.

集團 陽基에서 風水學으로 먼저 注意해야 할 것은 大部分이 산을 등진 平地에 터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 뒷산을 鎮山이라고 한다. 이 ‘鎮山’이란 陽基를 鎮護하는 산이란 뜻이다. 陽基를 정할 때 반드시 산으로 鎮護한다고 하는 것은 風水學 極히 興味 있는 일이다. 이 鎮山은, 神은 위쪽에 자리한다는 觀念 때문에 神은 山上에 坐定함을 믿고 그 神에 의해서 生活의 安定을 保護받는다라고 하는 部落 守護神이 鎮座하는 산이라고 보는 觀念에 의해서 命名되었을 것이다.

風水學으로 보면, 모든 都邑은 風水說에 의해서 整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風水說이 사람들의 確信을 얻게 되자 都邑 風水가 각 都邑에 適用되었다고 想像하기는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風水의 主眼은 生氣가 흘러 들어오는 땅을 구하는 데 있다. 그 生氣가 흘러 들어오는 것은 山脈이 中心이 된다. 이 山脈을 來龍이라고 한다. 따라서 風水學으로 吉地라고 하면 이 來龍의 산이 있는 곳이다. 이 來龍이 바로 鎮山이다.

都邑을 保護하는 山神이 鎮座하여 住民이 幸福하다고 믿기보다는 陰陽五行의 깊은 哲學的 根據를 가지고 人生의 吉凶이 生氣를 받아 厚薄이 정해진다고 믿는 風水說에 기울어져 生氣를 가져오는 玄武로서 뒷산을 두

는 것이 都邑의 幸福을 約束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 2. 現代的 都市 風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都市 地域은 傳統的 風水地理說에 의해 整地된 地域에서 發展을 이루면서 대대로 살고 있다.

産業化가 이루어지고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이 深化되면서 急速한 都市化의 影響으로 既存의 限定된 地域에서는 住宅問題 등 諸般 社會問題를 解決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都市의 居住 地域을 擴大하는 方案과 함께 같은 面積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人口 高密度 方案이 推進되었다.

居住地를 擴大하는 方案은 既存 都市의 住居地 以外の 地域인 山 稜線이나 農耕地에 住居地를 정하는 境遇이고, 人口 密度를 높이는 方案은 아파트 등 高層 建物を 建設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居住地를 마련하는 것이다.

時代的 變化에 따른 選擇이라고 하더라도 風水地理가 自然의 攝理를 이용하고자 하는 學問임을 勘案한다면 居住地를 새롭게 정하는데 있어서도 風水地理 理論을 適用하여 住居 立地를 정해야 함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 1) 風水地理와 住居地 選擇

農業社會가 産業社會로 變化됨에 따라 都市의 産業이 發展하고 따라서 많은 사람이 都市에서 職場을 갖기 위하여 都市로 몰려들었을 때 이들을 居住시키려면 居住 地域을 擴大하지 아니할 수 없다.

既存의 都市에서 形成된 居住地는 점차 擴大되어 山 稜線이나 農耕地에

---

6) 임 학섭, 전계서, P.194~196.

도 住宅이 建設되어 사람이 居住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 居住地를 정함에 있어서 風水地理 理論을 適用한 住宅 選擇 要領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따뜻해야 한다. 陽宅에서 風은 적절한 공기 소통을 도모하고 맞바람을 막아야 한다. 氣溫을 따뜻하게 하려면, 집의 方向이 南向·東南向이면 자연히 따뜻하게 마련이다. 만약 그와 反對 方向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에는 北西風이, 여름에는 東南風이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오히려 덥다. 自然的으로 따뜻하다는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늘져 어둡거나 陰沈한 집은 一次的으로 價格面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햇빛과 安定感이다. 生氣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太陽으로부터도 받는다. 또한 모든 生物은 햇빛을 必要로 하는데, 같은 햇빛이라도 氣가 일어나는 아침 햇빛을 받아야 한다. 저녁 햇빛은 오히려 生氣를 잃게 하는데, 西向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화초가 싱싱하지 못하고 시들어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安定感이란 大地 形態뿐만 아니라 建物 自體에도 適用된다. 이를테면 傾斜가 심하여 不安한 形態의 家屋이 그 價値가 떨어지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緣由 때문이다.

세 번째는 交通이 便利해야 한다. 交通이 便利해야 效用 價値가 높아 交通의 中心地에는 바로 商圈이 發達하고 人間 生活의 中心이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道路에 隣接하여야 한다. 交通이 便利하다는 것과 一脈相通 하지만 交通이 좋더라도 敷地 延長線에 있는 곳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大地의 四面 중에서 最小한 한 면만은 道路에 접해야 하는 데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道路의 交叉點이 되는 大地이다. 風水地理에서는 물이 만나는 주위에 穴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陽宅에서는 道路를 바로 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너 땅과 그 옆의 땅과는 價格 差異가 크게 나타나며, 商業 地域일수록 그 意味는 크다.

다섯 번째는 집 앞 풍경이 좋아야 한다. 住宅의 풍경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精神的인 安定과 情緒적으로 좋은 影響을 주어 健全한 思考를 하게 만들며 健康을 유지케 한다.<sup>7)</sup>

이와 反面에 風水地理上 나쁜 住居地를 가려내는 基準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막다른 골목집은 좋지 않다. 陽宅에서 길은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막다른 골목집은 길을 막았다는 의미이다. 바로 물을 막은 結果와 같다. 또한 물을 막는 것은 물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나쁜 氣가 形成되는 것을 意味한다.

둘째, 生土가 아닌 埋立地는 좋지 않다. 땅의 氣는 巖盤을 타고 흐르며 生土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風水地理 理論은 땅의 氣는 生土에만 있는 것으로 看做하여 氣가 없는 埋立土 위의 住宅은 氣를 받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 나무가 크다는 것은 相對적으로 뿌리가 크다는 것을 뜻하므로 집의 生氣를 나무가 받아 居住者 등에게 無益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落雷의 危險, 벌레, 그늘에 가려 항상 濕하고 陰地가 되어 집안을 어둡게 만들 우려가 있다.

넷째, 亡해서 나간 집은 좋지 않다. 이런 집은 大部分 집의 坐向이나 大門, 안방, 부엌 등의 位置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좋지 않다. 單獨 住宅에서 우물이나 연못이 마당에 있다면 그 집터는 바로 水脈이 지나는 집이거나 물이 고일 수 있는 濕地로서 좋지 않은 것이 當然하다.

여섯째, 大門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보이면 좋지 않다. 대문은 바로 물의 入口를 뜻하므로 안방이 直水가 되어도 좋지 않고 부엌 또한 마찬가지다. 實生活에 있어서도 來訪客의 눈에 모든 것을 내보이는 結果가 되어 항상 不安感을 갖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

7) 박 시익, 전계서, pp.40-55

일곱째,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들면 좋지 않다. 基礎 工事が 不實하다는 것을 뜻하며, 排水가 안 된 집으로써 崩壞 또는 地盤이 弱한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다. 집이 어둡다는 것은 方向이 나쁜 장소이며, 그늘이 지는 것은 항상 습하여 좋지 않은 條件이 있다는 證據이다.

## 2) 風水地理와 주택

### ① 東舍宅과 西舍宅

風水地理上 집의 方位를 보는 것은 坐向을 區分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坐向에 의한 기운을 區分함으로써 집의 吉凶을 분석하기 위한 理由가 더 크다.

一般的으로 집의 方位라고 하면 外部 方位를 말하는데, 마당의 中心點에서 建物과 大門 등의 方位를 測定한다. 內部 方位는 안방·화장실·현관·부엌 등이 配置된 方位에 의한 기운을 解釋하는 것으로, 집 안 中心點에서 각 방의 方位를 測定한다.

地表面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는데 바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땅 위에도 暖流과 寒流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다. 人體에도 動脈과 靜脈에 서로 다른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sup>8)</sup>

地表面에 垂直 回轉하며 흐르는 기운은 東氣와 西氣로 區分되는데 東氣는 地表面에서 上昇하는 기운이고 西氣는 下降하는 기운이다. 五行 중 水, 木, 火는 東氣, 그리고 土, 金은 西氣로 區分한다.

東舍宅이란 建物の 中心이 垞地의 中心에서 보아 東氣가 通過하는 方位인 北, 東, 東南, 南쪽에 있는 집을 말한다. 그리고 西舍宅이란 집의 中心이 垞地의 中心에서 보아 西氣가 通過하는 方位인 北東, 西南, 西, 西北

---

8) 강현구, 風水地理 理論과 住居立地論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pp.18-23

쪽에 있는 집을 말하는데, 住宅의 四相中에 있는 門(外部 出入門)이 垓地의 中心에서 보아 東舍宅일 때에는 東舍宅의 方位안에 있어야 하고 西舍宅에서는 西舍宅의 方位안에 있어야 한다.<sup>9)</sup>

만일 位置가 混入되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測定은 각 方位의 相生 相剋의 理致에 따르게 된다. 가령 垓地의 中心에서 보아 建물이 北쪽에 있으면 이 집은 東舍宅에 속하며 이 경우 大門이 南西쪽에 있으면 이 方位는 東舍宅에 맞지 않는 方位이기 때문에 不吉하고 그 影響은 土剋水하기 때문에 특히 中男에게 나쁘다.

方位를 分析하는 基準은 東舍宅과 西舍宅·陰陽·五行 세 가지지만, 가장 比重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東舍宅과 西舍宅이다. 세 要素의 比重을 따져 보면 東舍宅과 西舍宅이 60%, 陰陽에 의한 方位가 20%, 五行 方位는 20%의 影響을 미친다고 본다.

## ② 담 장

單獨 住宅에서 住宅의 品位와 主人의 人格을 나타내는 重要한 要因은 담장과 庭園樹를 들 수 있다.

新羅 時代 때에는 官職에 따라 담장 높이를 規定하고, 一般 百姓의 집은 여섯 자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집에 비해 담을 높이 쳐서 집이 담에 늘릴 경우 가난해질 상으로 보는 것은 家相의 常識에 속한다.

風水에서는 높은 것을 陰相, 낮은 것을 陽相으로 보고 相對的인 原理로 담이 높으면 집이 작아 보이고, 反對로 담이 낮으면 집이 커 보이기 때문에 結局 집과 담이 調和를 이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吉凶을 判斷한다.

아무리 堅固하고 完全히 遮斷된 담이라 할지라도 그 높이가 다섯 자를 넘으면 별 效果가 없다고 한다. 理由는 먼지와 騒音을 防止하는 데 다섯 자 이상의 담은 效果가 없다는 것이다.

比較的 차량 通行이 많은 地域에서는 어른 목까지의 높이까지 完全한 遮

---

9) 강현구, 전계서, pp.20-29

斷形으로 담을 쌓는 것이 좋고, 高地帶에서는 基礎부터 꼭대기까지 通風形으로 담을 만들면 비록 大門의 方向이 좋지 않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凶狀을 弱화시킬 수 있는 利點이 있다. 大門의 位置와 方位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立地 條件이 좋은 집에서는 비록 高地帶 집터라 하더라도 半 遮斷, 半 通風形의 板子 울타리나 鐵製 울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땅의 氣를 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쁜 氣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로 따져볼 때 집안에 큰 연못이 있는 집은 담이 낮아야 한다. 집터가 平地이거나 大門 제약이 적은 집에서는 折衷式 담이 理想的이고, 凹凸이 심한 집터에서는 通風形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집터가 平地라면 담이 바로 墓地의 左靑龍·右白虎의 役割을 하기 때문이다.<sup>10)</sup>

### ③ 庭園樹

담과 집의 調和를 補完하는 것이 庭園樹이다. 人間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自然을 征服했다는 뜻이며, 自然의 一部를 파괴했다는 意味도 된다. 하지만 自然 없이는 삶을 營爲할 수 없음을 깨닫고 結局은 自然을 다시 불러들여 庭園을 만들고 있는데, 집터에 나무가 없이 朔漠하면 땅의 氣가 없어진다고 믿어온 것이다.

庭園樹는 酸素를 排出하고 人間이 排出한 炭酸가스를 吸收하여 人間에게 新鮮한 空氣를 供給한다. 그런데 問題는 밤에 생긴다. 人間은 밤에도 酸素를 마시고 炭酸가스를 排出하지만, 나무는 낮과는 반대로 밤에는 人間에게 해로운 炭酸가스를 排出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큰 나무가 집안에 있는 것은 常識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리가 없다. 햇빛을 가려 採光에도 問題가 있으며 벼락이 치거나, 颱風 시에 危險性이 있어 心的 不安마저 든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집안의 禁忌에는 큰 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땅이 말라서 윤기가 없고, 스스로 영기를 머금어 사람에게 해를 준다. 나무를

---

10) 강현구, 전계서, pp.30-34

崇尚하고 나무의 氣가 強하면 사람의 기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했다.

### 3) 아파트의 風水地理

아파트의 空間에서 發生하는 기운은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파트 空間이 人間的인 霧圍氣를 充分하게 提供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데 人間이 靈魂을 갖고 있는 崇古한 生命體이듯, 人間에게 生命을 주는 아파트도 魂을 갖고 있는 巨大한 生命體이다.

現代 建築에서 세 가지 重要한 基準은 空間의 機能性, 構造의 安定性, 形態의 아름다움인데 아파트의 경우 機能面에서는 많은 成果를 얻었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影響이나 自然과의 調和面에서는 完全하지 못하고 있다.

#### ① 아파트의 方位

風水地理의 傳統性 때문에 東南向, 南向을 고수하고 있지만 風水理論으로 보아 南向집이 제일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집은 地勢에 의해 제일 좋은 方向이 決定되기 때문에 地勢에 따라서는 東向집이 제일 좋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北向집이 제일 좋은 집일 수도 있다.

아파트 한 世帶의 平面 形態는 거의 正四角形으로 앞면 길이와 깊이가 거의 1:1 비율을 이루는데, 거의 모든 아파트가 한 층에 열 世帶 程度를 直線으로 連結한 構造를 갖고 있어 아파트 全體 平面 形態는 가로 세로 比率이 1:10으로 直四角形을 이룬다.

建물이 기차를 連結하듯 直線形이 되면 環境의 影響을 받아 사람이 單純해진다는 解釋이 있으니 아파트는 橢圓形이나 四角形으로 配置해야 한다.

골목 바람은 殺風이라 하여 健康한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린이와 老人에게는 健康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다. 單獨 住宅에서

막다른 집이 안 좋은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健康한 青年은 달리는 버스에서 창문을 열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老人은 感氣가 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微弱한 선풍기 바람도 人體 活動이 中止되는 잠자리에서는 아주 나쁘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殺風에 오래 露出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sup>11)</sup>

人間은 기후에 따라 性格이 形成되는데, 四季節을 같은 온도에서 지내게 되면 性格이나 體質이 달라진다는 理論이다. 꽃도 추운 겨울이 있는 곳에서 자라야 아름답고, 나무도 四季가 뚜렷한 곳에서 자라야 實하듯이, 사람도 氣候 變化가 있는 곳에서 시달려야 健康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한 동 크기가 웬만한 산 하나 크기와 맞먹는데 아파트 形態를 風水地理 側面에서 산 形態를 適用시켜 보면 매우 좋지 않은 凶家 形態임을 알 수 있다.

산의 品格이나 體形으로 보면 主人格과 強體의 산은 等高線 形態가 正四角形이나 圓形을 이뤄 中心에 기운이 모이는 形態다. 그러나 既存 아파트의 경우 左右 길이는 길고 폭은 좁은 1:10의 직선 형태를 이루고 있어 補助格에 該當되며 體形으로는 弱體에 속한다.

아파트의 지붕 形態로 살펴보면 평슬래브 지붕 形態는 산 形態로 보면 水山에 속한다. 水山은 中心에 기운이 모이는 空間이 없고 左右로 分散되는 形態이다.

建物 形態를 陰과 陽으로 區分하면, 밑에 있는 벽은 陰이고 위에 있는 지붕은 陽이다. 陰은 物質과 肉體를 象徵하고, 陽은 精神과 마음을 象徵한다. 아파트 形態가 陰으로만 構成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이 物質을 점점 더 重要하게 생각하고 精神이나 마음의 重要性에 대해서는 차츰 疏忽해진다.

## ② 아파트의 坪數

風水로 볼 때 가장 理想的인 아파트 坪數는 居住者 한 사람당 專用

---

11) 강현구, 전계서, pp.35-39

面積 6坪이다. 4인 家族이면 24坪이 가장 理想的인 面積이다. 그러나 지나친 物質主義로 인하여 아파트 坪數를 곧 그 집의 品格으로 判斷하는 등 넓은 坪數의 아파트를 選好하고 있는 實情이다.

家族數에 비해 空間이 넓고 큰 아파트는 좋지 않다. 食口에 비해 規模가 큰집은 옛날부터 '빈 방에 鬼神이 있다.'고 해서 警戒했는데, 우리 祖上들의 슬기로운 智慧였던 것 같다.

風水적으로 보면 아파트에 비어 있는 방이 있으면 凶事가 자주 일어나는데 사람이 居住하지 않는 방은 冷氣가 흐르게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빈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방을 옷 방처럼 사람이 자주 들어갈 수 있는 空間으로 만들거나, 문을 열어 놓아 사람의 氣와 서로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現代의 心理學者들에 의하면, 私생활이 完全히 維持되는 空間에 혼자 있게 되면 緊張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解消되어 얼마 동안은 精神 衛生에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生活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維持되면 精神이 弛해져서 삶의 意慾이 喪失되고 無氣力해진다고 한다. 適當한 緊張만이 사람을 生氣있게 만든다.

東海岸으로부터 바닷고기를 실어 나를 때, 물통에 넣고 출렁거리며 그대로 실고 오면 고기가 거의 瀕死 狀態가 되어 商品 價値를 잃게 되는데, 고기의 天敵인 낙지를 통 속에 같이 넣고 오면 고기가 생생하다는 理致와 같다.

### ③ 아파트의 높이

아파트를 選擇할 때 坪數와 함께 重要하게 생각하는 것이 層數다. 그러다 보니 소위 '로얄층'이라는 말도 생겼는데 風水에서 볼 때 理想的인 아파트 層數는 5층 이하 底層 部分이고, 高層으로 올라갈 수록 좋지 않다. 그 理由는 땅과 사람이 사는 집의 기운이 서로 통해야 한다는 데 根據가 있다.

사람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同時에 받고 살아간다. 高層으로 올

라갈수록 地表面과 멀어지게 되고 땅에서 받는 生氣는 적어진다. 하늘의 기운만 받는 높은 곳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地表面에서 가장 높이 살아있는 生命體는 나무인데 나무보다 높은 位置에서 居住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나무 높이는 種類나 地域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15m 程度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5層 程度의 높이로 본다.

아파트의 높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의 成長에도 影響을 미치는데 땅은 萬物의 어머니로 어린아이들이 땅에 발을 딛고 자라야 하며 흥장난을 하면서 땅의 기운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높은 層의 아파트가 展望이 트여 시원하다고 좋아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아래를 내려다보면 眩氣症이 나고 恐怖感이 인다. 이것은 無意識的으로 動物의 防禦的 感知力이 그 位置가 좋지 않다는 警告의 意味이다.

高層 아파트가 좋지 않다는 것은 高層 아파트에 사는 妊産婦가 流産率이 높다는 醫學的 報告도 있다.<sup>12)</sup>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熱管理 때문에 空間의 密閉가 完璧하여 酸素 缺乏症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風水가 바람을 막고 물을 얻을 수 있는 環境을 얘기하는 藏風得水의 말인 것을 생각하면 風은 바로 空氣를 뜻하는데, 空氣 중 우리에게 가장 많은 影響을 주는 것이 酸素다. 그래서 風水는 酸素의 研究라고 하는 主張도 있다. 陽宅三要訣에서 大門을 제일 重要視하는 理由는 집안의 空氣를 大量으로 換氣시켜주는 것이 바로 大門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南向집이면서도 大門이 南東쪽에 있는 것은 生氣宅으로 夫婦가 偕老하고, 吉事가 많고, 대대로 榮華를 누릴 吉家로 풀이한다. 그러나 똑같은 집이라도 大門을 北東쪽으로 내면 五鬼宅이 되어 官災, 口舌, 盜難, 火災, 不和, 不孝로 인한 凶家로 본다. 風水地理의 陽宅論에서는 이런 禍福論도 믿고 있는데, 집을 살 때는 제일 먼저 大門을 고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可能하면 凶家라 해

---

12) 샘터, 「자연 유산과 자연 도태」, 1996. 4.

도 두려워할 必要가 없다.

#### ④ 아파트의 內部 環境

單獨 住宅의 경우, 좁은 庭園에 연못이 있으면 風水地理로는 집안 食口 가운데 어느 사람이 神經 系統의 疾患을 앓을 것으로 解釋한다. 이와 같은 理致로 아파트에 設置한 噴水나 大形 어항도 역시 좋지 않다. 물은 五行 가운데 陰에 該當되며 집안에 있는 陽을 吸收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집안의 生氣를 吸收하면 방안에 있는 기는 자연히 죽은 기가 되어 이를 呼吸하는 사람에게 나쁜 影響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물이 어떤 氣를 빨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로스구이를 할 때 밑에 물을 넣은 철판 容器를 使用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現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일 噴水 施設을 하더라도 물을 항상 뿜어 올려주면, 이 움직이는 물을 陰으로 보지 않고 陽으로 보기 때문에 집안에 濕度를 調節하는 좋은 環境을 維持할 수 있으나, 噴水를 가동하지 않으면 물은 썩게 마련이며, 平均의 서식 등 衛生的으로 不良한 것은 事實이다.

## 第4章 華城建設과 風水地理

### 第1節 華城建設

華城이라는 신도시 건설은 정조의 왕권 강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비명에 죽은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복권해 자신의 정통성과 위엄을 세우기 위하여 부친의 능침(顯隆園)을 수원부 읍치가 있는 花山으로 천봉하고, 그 수호도시로서 화산 북쪽의 팔달산 아래에 신도시 華城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조선이 中華라는 문화적 자부심을 기저로 한 동아시아의 문화중심국으로 기치를 드높이기 위해서도 중화의 도성인 화성의 존재가치가 필요했다.<sup>13)</sup>

華城建設은 이미 1790년(정조 14)부터 준비되었다. 정조 14년 6월 10일 副司直 姜游는 수원에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기를 건의하였다.

“水原은 곧 摠戎廳의 바깥 군영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鎭이고 더구나 또 막중한 능침을 받드는 곳이니, 의당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新邑을 옮겨 설치하였으나 城池의 방어설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에 옮겨 설치한 것을 계기로 성지도 아울러 경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옛사람의 말에 ‘金城湯池’라고 한 것은 곧 참호를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산을 의지하여 쌓게 되어 참호를 설치할 수 없으니, 이는 옛 제도가 아닙니다. 신읍은 이미 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과연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한다면 실로 성을 설치하는 조건에 맞을 것입니다.”<sup>14)</sup>

13) 정옥자,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일지사, 2000.

14) 「正祖實錄」卷30 14年 6月 10日 己未.

강유의 덧붙여서 禿山城과 서로 견제하는 세력을 만들고, 유사시에 협공의 형세를 이루게 한다면 설사 난폭하고 교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兵法에서 꺼리는 것임을 알고 감히 두 성 사이를 엿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을 쌓는 방식은 石城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우니 土城을 견고히 쌓는 것이 더 좋은 축성법이라고 하였다. 토성에다가 성가퀴를 설치하고 군데군데 稚城을 설치하면 방어하는 방도로는 석성이나 토성이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새로운 축조방법도 제기하였다.<sup>15)</sup>

하지만 강유의 축성 건의는 조정에서 논의된 이후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어 愼基慶이 정조15년 1월 22일 12가지의 상소중의 하나로 수원에 성곽축조를 제기하였다.<sup>16)</sup> 하지만 신기경의 축성건의도 비변사에서 논의한 결과 없던 일로 마감하였다. 이로서 수원으로 移邑한 후 축성 건의가 조정에서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진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축성과 성제에 대한 논의는 국왕을 비롯한 조정의 대·소 신료들 사이에서 한층 공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1792년(정조 16) 겨울 홍문관 수찬 정약용이 왕명을 받들어 수원성의 規制를 지어 올리니,<sup>17)</sup> 이것이 바로 축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초기의 계획안이었다. 그 내용은 다산의 문집 『與猶堂全書』 시문집, 說 속에 수록된 「城說」과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산은 「城說」과 「自撰墓地銘」에서 각각 이때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화성의 성역이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일은 번잡하고, 시기는 어려운 때인데 일은 크게 벌려 놓았으므로 성상께서 노심초사하고 계시지만, 조정의 의논은 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다만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신이 삼가 전에 들은 것을 간추려 외람 되나마 어리석은 견해를 올립니다. 첫째는 분류, 둘째는 재료, 셋째는 壕塹, 넷째는 築基, 다섯째는 伐石, 여섯째는 治道, 일곱째

15) 『正祖實錄』 卷30, 상계서

16) 『正祖實錄』 卷32 15年 1月 22日 丁酉.

17) 丁奎英 편, 『俟菴先生年譜』 正文社, 1984.

는 造車, 여덟째는 城制입니다. 임금께서 친히 이것을 보셨다니, 몸들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sup>18)</sup>

… 나는 尹耕의 「堡約」과 柳成龍의 「성설」에서 도움을 받아 그 중 좋은 방법을 따다가 譙樓·敵臺·懸案·五星池의 여러 방법을 이치에 맞게 밝혀 임금께 올렸다. 왕께서는 또 內閣에 있는 「圖書集成」과 「奇器圖說」을 내려보내 引重起重之法을 말씀하여, 나는 이에 起重架圖說을 작성하여 바치고, 滑車와 鼓輪 등을 써서 작은 힘으로도 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성 쌓는 일을 끝마쳤을 때 왕은 말씀하시기를, “다행히 起重架를 사용하여 4만냥을 절약했다”고 하셨다.<sup>19)</sup>

앞의 기록에서 다산은 화성의 성역이 경비·작업·시기 문제를 둘러싸고 어려움이 많은 데다가 조정의 논의 또한 합치되지 못해 국왕이 고심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분류·재료·호참·축기·벌석·치도·조차·성제 등 8조목으로 나누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어서 다산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적인 설계를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산이 정조에게 올린 「성설」이 이후에도 수정과 보완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그 큰 줄거리는 정조 16년 겨울에 입안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 계획안은 뒤에 『華城城役儀軌』 권1, 「御製城華籌略」의 기본 뼈대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0)</sup>

당시 朝野에서는 화성의 읍성으로서 성곽을 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으나, 그 축성 방략을 둘러싸고는 통일된 논의가 없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었다. 혹자는 성곽 축조에 따르는 재력과 석재의 어려움을 들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심지어 수원읍은 邑基가 평야에 자리잡고 있어서 4면에서 적을 맞는 형세이므로 지형적으로 축성은 불가하다는 논의까지 일고 있었다.<sup>21)</sup>

18) 「與猶堂全書」卷10, 詩文集, 說, 「城說」.

19) 「與猶堂全書」卷16, 「自撰墓地銘」(集中本).

20) 최홍규, 「화성축조와 화성성역」, 『水原市史』, 1996.

21) 「天一錄」卷4, 「觀水漫錄」上篇 總論, 築城方略.

정조는 화성축조를 앞두고 1794년(정조 18) 1월 8도의 수령·방백들에게 城池의 제도를 그려 바칠 것을 명한 바 있으며, 당시 경상좌도병마사 尹範行이 上奉한 城池圖가 매우 조잡하다고 하여 그 직을 삭탈·문책할 정도로,<sup>22)</sup> 정조는 이윽 후 온 관심을 화성 건설에 쏟았다. 정조 17년 5월 25일 새로 영의정에 임명된 채제공의 「축성방략」이 이미 제출되어 있었던 듯 하였다.

“경이 올린 「築城方略」을 보니 늙은 재상의 정신을 쓴 것이 더욱 마음에 감동되었다. 백리를 갈 때에는 90리가 반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이것은 바로 시작이 반이라는 것이다. 이미 이같이 경영하여 시작했으니, 이루어내는 공은 오직 감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있는 것이다.<sup>23)</sup>

위의 내용과 같이 채제공은 화성 축성에 대한 계획을 건의하였고, 정조의 치하 내용을 통해 축성계획 또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해 12월 6일 監董堂上이 된 조심태가 “석벽의 남북변은 석성으로, 동서변은 토축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화성의 성터는 산세가 험하지 않고 들판이 뻗어 있기 때문에 曲城과 譙樓를 건설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啓한 것으로<sup>24)</sup> 보아 실무책임을 맡은 조심태의 축성계획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2월 8일 登筵時 국왕은 조심태에게 축성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 치성과 웅성도 필요한 것이지만 壯麗하면서도 重威를 갖추도록 “城樓가 雄壯美麗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하는 것도 守城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懸眼을 반드시 만들 것을 제안하고, “漏槽와 五星池의 제도를 또한 정확히 강구하여 고금의 美制를 이 성에 모두 갖추게 하라”<sup>25)</sup>고 하교하였다.

22) 『正祖實錄』 卷39, 18年 1月 7日 乙未.

23) 『正祖實錄』 卷37, 17年 5月 25日 丙辰.

24) 『華城城役儀軌』 卷1, 啓辭.

25) 『華城城役儀軌』 卷1, 筵說 癸丑 12月 8日.

정조는 12월 6일, 성역과 신도시 건설을 主管摠察할 총리대신에는 초대 유수를 지낸 영증추부사 채제공을, 그리고 수원부사를 거쳐 훈련대장으로 재임 중에 있던 조심태를 제3대 水原留守 겸 監董堂上에 임명, 성역을 전담케 하였다. 이 날 새로 임명된 감동당상 조심태의 장계에 대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최선의 방법은 物動計劃을 기동성있게 처리할 것’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정조는 筵席에 同席한 채제공 등 조신들에게 우리 나라와 중국의 성제를 본뜨고, 또한 스스로 ‘널리 고증하고 자세히 연구하여 후인들로 하여금 오늘의 조정에 인재가 많았음을 알게 하도록 힘 쓸 것’을 강조하는 등<sup>27)</sup> 화성 성역이야말로 당대인들이 온갖 경륜을 투영하여 이룩해야 할 최대의 사명이며, 역사적 사업임을 상기시켰다.

한편 축성비용에 대해서는 앞의 『礪溪隱錄』 兵制後錄 城池條에 담긴 유형원의 제안에 크게 계발을 받은 데다가, 채제공·조심태 등 관계 중신들의 건의도 같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금위영·어영청의 停番錢 10년분을 우선 取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sup>28)</sup>

즉, 정조는 17년 12월 채제공·鄭民始·沈頤之·尹行恂·조심태 등의 측근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금·어영청 소속 정번군이 내는 1년간 2만여 냥, 10년간 약 25만 냥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키로 우선 결정한 것이다.<sup>29)</sup>

당시 兩營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서 양민을 징집하여 番上케 했는데, 이때 평시에는 많은 병력을 징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목면 1필 또는 米 6두를 바치게 했던 것이며, 이 정번전은 바로 각 지방에서 이를 징수하여 換錢한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정조가 이 정번전 10년분 취용에 쉽게 동의한 것은 “본래 經用을 煩費하지 않으면서 금·어영청의 停番한 군인에게서 받은 돈을 취용하면 공사면에 있어서 조

26) 『正祖實錄』 卷38, 17年 12月 6日 乙丑.

27) 『華城城役儀軌』 卷1, 啓辭, 癸丑 12月 8日.

28) 『華城城役儀軌』 卷1, 筵說 癸丑 12月 6日.

29) 『正祖實錄』 卷38, 17年 12月 6日 乙丑.

금도 거리낄 것이 없고, 또 軍民 모두에게도 편할 것”<sup>30)</sup>이라는 생각 때문에서였다.<sup>31)</sup>

정조는 우리 나라와 중국의 성제에 관한 장점을 취할 것을 하교하였다. 특히 城制에 유의하여 그전의 성곽 축조 때는 밖으로 배가 불러 무너지기 쉬웠다는 단점을 고려하여 성을 쌓을 때 아래의 1/3까지는 점점 안으로 좁혀 매 층의 차이를 1寸 비례로 좁히고, 위의 1/3부터는 점차 밖으로 넓혀나가 매 층의 차이를 3분쯤으로 한다면, 축성이 끝났을 때 2배는 빈 것처럼 안으로 줄어들고, 그 몸은 마치 笏과 같은 모양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鏡城의 성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과 곡성·초루의 법에 관해서는 유성룡이 「성설」에서 밝힌 방법과 중국 茅元儀의 『武備志』를 자세히 검토하고 그 장점을 취하여 행할 것을 하교했던 것이다.<sup>32)</sup>

1789년 수원 신읍치 이전부터 구상되고 진행되던 화성성역은 마침내 1794년(정조 18) 1월 15일 정조의 하명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33)</sup> 그리고 자신의 화성건설의 숨은 뜻을 온 신료와 백성들에게 나타내었다.

“이 사업은 수원부가 畿湖의 요충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5,000 병마의 무리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만도 아니다. 한편으로는 仙寢을 위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行宮을 위한 것이다. 마땅히 민심을 즐겁게 하고 민력을 덜어주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가까운 일이 있다면 비록 공사가 하루를 못 가서 이루어진다 할 지라도 나의 본의는 아니다.”<sup>34)</sup>

30) 『華城城役儀軌』 卷1, 筵說 癸丑 12月 6日.

31) 李達鎬, 『華城建設研究』 상명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8.

32) 李達鎬, 전게서

33) 『正祖實錄』 卷39, 18年 1月 15日 癸卯.

34) 『華城城役儀軌』 卷2, 碑文 華城紀蹟碑.

결국 정조는 수원을 大都會로 성장시켜 자신의 친위 도시로 만들 의도였지만 진자 숨은 뜻은 현릉원을 보호하고 행궁을 보호하고자 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화성건설을 무리해서 하지 않고 人和로서 추진하였으며, 이것이 자신의 의지와 더불어 思悼世子の 의지임을 보여주었다.

## 1. 華城의 風水地理

1793년 1월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켰다.<sup>35)</sup> 화성유수부로 승격이후 정조는 화성건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고, 이에 1794년 1월부터 화성성역이 시작되었다. 정조를 비롯한 화성성역 참여자들은 화성유수부 자체가 하늘이 내려준 ‘金城湯池’라고 인식하였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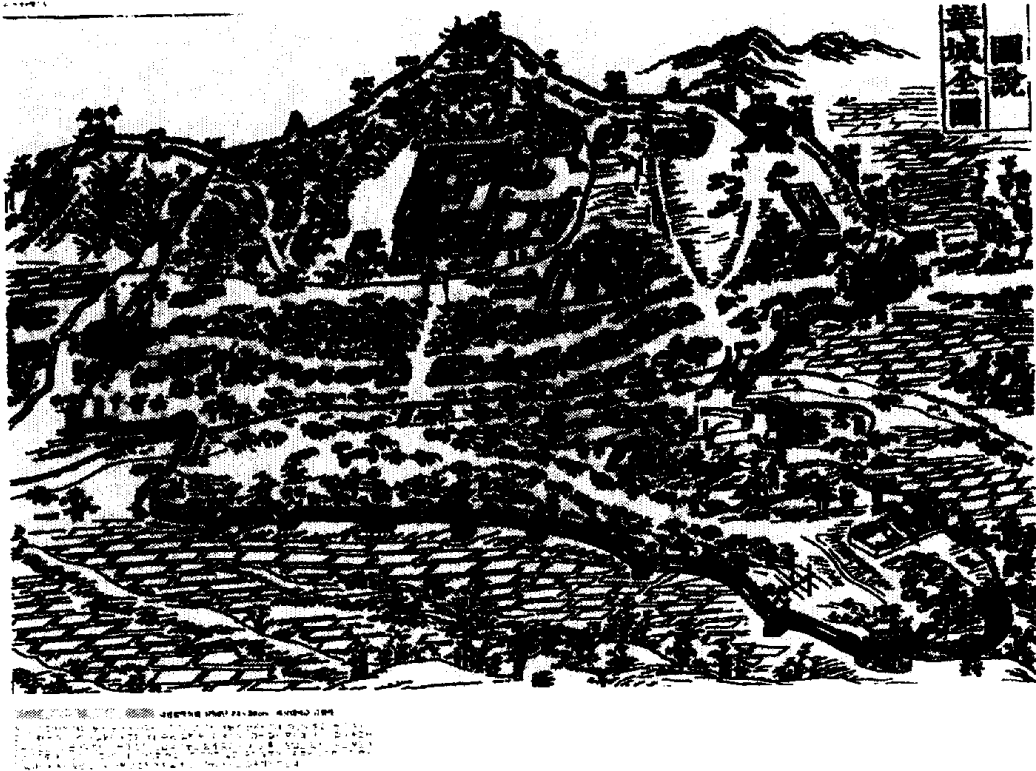
즉 도시 전체가 동쪽을 향해 열려있는데 팔달산이 後鎮이 되어 있고 一字砂가 편편하여 가까이 案山이 되었으며 가운데로 大川이 남북으로 꿰뚫어 흐르고 있는 지형이다. 더구나 도시를 아우르는 四角이 모두 높고 여덟문이 서로 어긋매겨 서 있으니 당시 화성을 건설했던 조정 관료들과 풍수지관들 모두가 금성탕지라고 여긴 것이다. 더구나 남쪽 성 밖과 북문 옆에 자연적으로 깊은 도랑이 있고, 서산의 뒤와 동성의 아래에도 자연적인 해자가 있어 성 둘레에 다시 도랑을 파지 않더라도 저절로 지형에 따라 견고한 성의 구실을 하기 되니 배산임수의 풍수적 지형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다.<sup>37)</sup>

35) 『正祖實錄』 卷37, 17年 1月 15日 丙午.

36) 『華城城役儀軌』 卷2, 城神祠 上標文.

37) 『華城城役儀軌』 卷首, 局面.

[그림4-1] 화성전도



또한 정조시대 화성 건성의 주역들은 화성을 큰 도읍지로 인식하였으며 수호해야 할 땅으로 右扶風이라 칭하였다. 화성은 크게 보아서 서해안을 등지고 한강에 임해서 서울과 백리에 걸쳐있으며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큰 길에 자리잡아 사방으로 통하는 천혜의 지역이었다. 또한 호남과 경기의 수로와 육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이자 한반도의 목구멍과 같은 중요한 땅이었다.<sup>38)</sup> 이러한 길지이기 때문에 화성을 한나라 고조의 풍패, 주나라 무왕이 세운 낙양과 같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39)</sup> 결국 화성은 용이 서리고 봉황이 나는 형상으로 하늘이 준 제왕의 고을이요, 집이 만들어진 것은 학의 상서로움과 거북의 징조가 응하였으니 성인이 축원한 곳이었다.<sup>40)</sup>

38) 『華城城役儀軌』 卷2, 上標文, 長安門上標文.

39) 『華城城役儀軌』 卷2, 上標文, 八達門上標文.

40) 『華城城役儀軌』 附編2, 上標文 奉壽堂上標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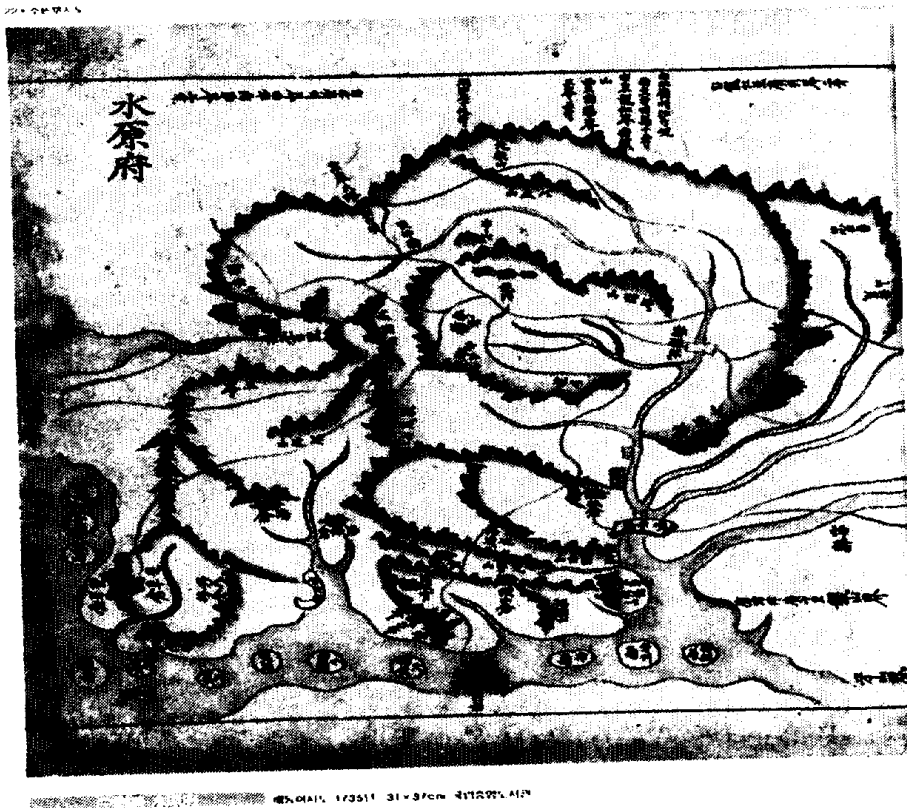
華城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팔달산을 鎮山으로 하고 있다. 팔달산은 매우 아름다우며 특별한 풍수를 지니고 있다. 팔달산 위에 올라 보면 멀고 가까이에 산봉우리들이 둘러 있는 것이 마치 못 별들이 북극성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처럼 되어있다.

수원 신읍치의 화성 건설은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축성되었다. 主山 팔달산을 중심으로 북동향으로 祖山인 光教山이 자리잡고 있다. 광교산은 漢南金北正脈의 명산으로 속리산의 精氣를 淸溪山과 관악산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교산은 예로부터 80암자가 있었다고 할만큼 불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고려시대 裨補산악으로 이름나 있던 산이다.

팔달산의 宗祖山으로는 광교산 북쪽에 자리잡은 관악산이다. 팔달산에게 광교산 그리고 관악산의 방향 자체가 일직선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풍수의 위치상 관악산은 화성의 종조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안문 북쪽으로 광교산의 지맥인 遲遲峴이 나지막히 솟아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되 외부로부터의 악한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지현으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면 팔달산의 서북방향으로 여기산이 뒤를 받치고 있다. 여기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팔달산을 아우르는 팔백봉우리 앞에서 1차로 主山인 팔달산을 호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여기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로 훗날 祝萬堤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쪽으로 구읍치의 독성산이 자리잡으면서 화성은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사방이 높지 않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포근함과 아울러 땀감의 근심을 덜게 되었다.

[그림4-2] 수원부지도



팔달산 정상 아래 산기슭을 따라 경사지가 펼쳐지고, 그 위에 화성행궁이 자리 잡았다. 화성행궁은 시가지가 열리는 곳의 평지에 위치해 있다. 성내 중심부를 이루는 화성행궁은 동향하고 있는데 이는 뒤로 산에 기대고 앞으로는 물에 임하는 배산임수의 기본적인 조건을 따른 것이다. 서쪽의 팔달산이 높고 동쪽이 낮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화성의 기본 局面은 이곳을 金湯之地로 만들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다.

“화성 전체의 국면은 동쪽을 향하여 열리었는데, 팔달산이 높이 솟아 後鎭이 되었다. 一字砂는 편편하여 가까이 案山이 되었는데, 가운데로

한내(大川)가 남북으로 꿰뚫어 흐르고 있다. 사각은 모두 높고 넓은 여덟 문이 어긋 매겨져 있으니 정말 이것이야말로 萬年の 金湯之地로구나.”<sup>41)</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성은 구읍치의 花山에 비해 左右山의 環抱가 미약하지만 서쪽의 팔달산은 主山으로 삼아 산에 기대고 앞으로는 柳川을 끼고 맞은편의 낮은 언덕은 案山으로 삼아 입지하고 있다. 화성행궁이 자리잡은 위치는 팔달산 자락 아래로, 앞쪽으로 긴 장방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화성의 案山이 되는 一字砂는 현재 남수문 위로 봉돈으로 향하는 평지를 일음이다. 원래 풍수에서 안산이란 혈 앞에 가까이 있는 낮고 작은 산을 말한다. 마치 貴人 앞에 있는 책상과 같아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혈 뒤에 있는 주산 玄武(화성의 경우에는 팔달산이 된다.)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다. 안산은 유정하고 아름답게 혈 앞에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본다. 안산은 바르고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수려하고 단아하게 잘생겨야 吉格이 된다. 수려하고 단정한 안산이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있으면 매우 길한 안산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화성의 안산은 一字砂(혹은 一字文星)라고 했다. 풍수에서는 주산인 현무를 둘러싼 주위의 산들을 砂格이라하는데 보통吉한 사격은 그 형태가 장엄하고 高聳하며 淸奇하고 神秘하여 아름답고 다정한 산을 말한다. 그 중의 하나가 일자(문성)사이다. 이것은 산 정상에 일자모양으로 평평한 것을 말한다.

정조가 축성하는 현장에 와서 작업지시를 하는 중에 행궁의 안산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여기는 이른바 一字文星의 자리인데, 여러 의논도 이곳을 문성자리로 여기고 있다. 문성은 둘이 겹쳤으니 龍淵과 砂角이 좌로부터 안으로 굽

41) 『華城城役儀軌』 卷首 圖說 局面.

어들어 2것이 여미어진 것 같다. 마땅히 內文星에 축성하여 城形을 조금 줄여서 사각을 물리고, 외문성에는 따로 토성을 쌓음으로써 內城을 보호해야한다고 하는 데 내 생각에는 외문성으로부터 축성을 시작하여 용연의 모래필을 건너 질러 같이 성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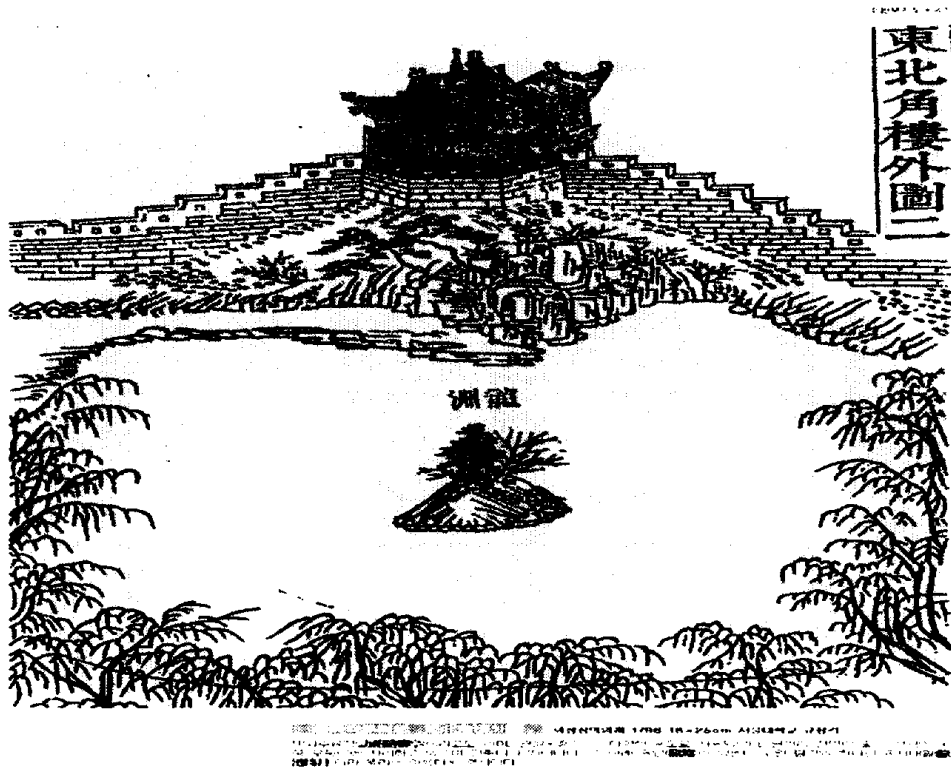
내문성을 따라 축성하고 외문성에는 토성을 쌓는 안을 물리친 정조의 지시에 따라 외문성 성곽을 두르고 내문성은 성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다. 행궁의 안산은 이렇게 일자문성이 두 겹으로 겹쳐있어 국내의 생기를 갈무리 해주고 있어 풍수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화성 내부에서는 용과 거북의 상징성을 보여주며 풍수적으로 명당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訪花隨柳亭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마치 용의 머리처럼 앞으로 내달리는 기세를 하고 있는 석상아래 자리 잡은 연못이라 용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용연 기슭은 앞면이 石壁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은 光教山에서 흘러나와 석벽 아래에 이르러 물이 돌아 흐르게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휘돌아 나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邑治를 경과하는데, 기슭을 따라가다가 꺾여 지는 곳에 장차 다리를 걸쳐놓고 성을 쌓아 水門을 만들었다. 이 수문이 바로 華虹門이다. 정조는 방화수류정과 화홍문 터를 보며 이곳의 풍수지리에 대해 감탄을 하였다.

“오른쪽은 귀봉이고 왼쪽은 용연이어서 거북과 용이 서로 마주하고 있으니 그 이름 역시 우연하지 않다. 일자문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 더욱 두겹고 공고한 기상을 보겠고, 용연의 기슭이 용의 머리로 되어 있고 석벽이 웅크린 것처럼 솟아 있으니 風氣가 응결되어 매우 활기찬 기상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겹하여 水害를 막는 공이 있게 되었으니 마

42) 『華城城役儀軌』 卷1 筵說 甲寅年 1月 15日.

[그림4-3] 동북각루외도



치 이 성 쌓는 역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인 듯하다. 지리와 지세가 매우 좋아서 오늘 살펴본 뒤로 나의 마음은 매우 만족스럽다. 성을 쌓는 역사의 큰 줄거리는 이러하니, 예컨대 여기에 潤色을 더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를 말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sup>43)</sup>

정조의 命에 의해 龍頭위에 축성된 방화수류정은 화성의 동북모퉁이에 있는 중요한 시설물로, 비상시에는 군사지휘부 역할을 하는 동북각루로 설계되었다. 주위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에 자리잡았고, 탁월한 건축미까지 갖춘 정자로서 기능적 측면과 심미적인 측면이 절묘하게 조화된 시설물이다.

용연과 구암의 존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길상스러움을 찾는 것처럼 정조는 성곽의 남북길이가 너무 좁게 획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

43) 『正祖實錄』 卷39, 18年 1月 15日 癸卯.

하고 남북이 길게 버들잎모양처럼 되게 터를 잡아 민가가 철거되지 않도록 성을 확장해서 쌓도록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지시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졌지만 지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결부된다는 점이다.<sup>44)</sup>

“현릉원이 있는 곳은 花山이고 이 府는 柳川이다. 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堯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華城이라고 하였는데 花자와 華자는 통용된다. 화산의 뜻은 대체로 8백 개의 봉우리가 이 한 산을 둥그렇게 둘러싸 보호하는 형세가 마치 꽃송이와 같다 하여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柳川城은 남북이 조금 길게 하여 마치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면 참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제 화성과 유천의 뜻을 이미 영부사에게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성을 좁고 길게 하여 이미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고 나면 북쪽 모퉁이의 인가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 곳에 세 굽이로 꺾이어 川 자를 상징한 것이 더욱 유천에 꼭 들어맞지 않겠는가.”<sup>45)</sup>

화성 건설의 처음 계획은 화서문에서 장안문까지 직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팔달산을 주산으로 柳川을 臨水로 제왕의 성곽인 方形으로 계획하였다. 처음 설계를 주도했던 丁若鏞은 방형으로 3,600보를 계획하였다. 이는 夏殷周 3대의 王道가 3,600였기에 화성을 聖君인 정조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함이었다.<sup>46)</sup> 총리대신 채제공과 화성유수 조심태 역시 그와 같은 의견이었다. 이렇게 화서문과 방화수류정을 일직선으로 쌓고자 할 때는 중간에 있는 민가를 철거해야 했다. 정조는 人和를 중시하여 북문위치를 계획된 것보다 더 바깥쪽으로 확장하여 人家를 성안으로 수용하고 남문과 북문거리도 더 넓게 잡으라고 명

44) 成東桓, 「顯隆園 遷園과 華城建設을 통해 본 正祖의 風水地理觀」, 『韓國思想史學』 17, 2001.

45) 『正祖實錄』 卷39 18年 1月 15日 癸卯.

46) 『與猶堂全書』 卷16, 「自撰墓地銘」(集中本).

한 것이다.<sup>47)</sup> 또한 정조는 앞서의 내용과 같이 성곽의 범위를 확장해 남북이 긴 버들잎모양의 성터를 잡고 동시에 세 굽이로 꺾이게 천자 모양을 상징해서 성을 쌓도록 지시했다.

柳川이라는 지명에 맞게 버들잎모양으로 터를 잡고 내와 같이 구불구불하게 성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을 통해, 장소에 상징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정조의 탁월한 풍수적 정서를 엿볼 수 있다. 풍수에서는 흔히 특정한 장소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그 장소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땅과 인간과의 풍부한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sup>48)</sup>

그리하여 장소에 대한 정체성과 안정감, 애착심을 갖게 한다. 정조의 지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철거해야 할 人家를 성안으로 수용하기 위해 성곽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었지만, 풍수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리적 요소에 상징과 은유를 부여하여 그 땅에 대해 장소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여 화성에 대한 장소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정조는 화성의 명당수인 유천의 준설을 통해 기존의 풍수적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보완하였다. 이는 앞서의 내용과 같이 시대가 변하면서 풍수의 개념도 약간씩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으로 신읍치를 옮긴 이후 장마 때마다 유천의 범람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였다. 결국 화성성역을 통해 유천의 대대적인 정비 사업으로 물을 흐름을 통제하고 장마로 인한 고통을 사라지게 했다. 그러나 그 이전 천이 흐르는 水口를 확대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이것을 과감히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水口가 크고 넓으면 백성이 饒足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 마디로 말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먼저 수구에 관한 說을 볼 때 도회지나 고을과는 관계가 없으니 풍수에 관한 책에서 찾아보면 분명하다. 만일 성밖에 산을 만든다면 그 형편이 성안을 내려다보기가 쉬

47) 『華城城役儀軌』 卷1 筵說 甲寅年 正月 14日.

48) 成東桓, 顯隆園 遷園과 華城建設을 통해 본 正祖의 風水地理觀, 『韓國思想史學』 p.17

울 것이고 물 아래쪽 제방을 만든다면 물길을 가로막기가 편할 것인데, 앞서의 경우는 성 주변에 譙樓를 배치하는 뜻에 어긋나고 뒤의 경우는 물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명당의 금기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과거 명사들의 큰 계획을 참고해 보면 平壤의 성이 설치되었을 때 강 오른쪽에 길게 잇닿은 숲을 길렀고 善山의 고을이 완성되었을 때도 시내 왼쪽에 역시 거대한 숲을 설치하였다. 옛말에 ‘백 가구의 마을과 열 집의 저자라도 반드시 산을 등지고 시냇물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우선 금년부터 나무를 심되 버드나무·뽕나무·밤나무 등 아무 것이나 가리지 말고 많이 심어 숲을 만들어서 경관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 또한 먼저 조치해야 할 일이다.<sup>49)</sup>

정조의 陽基風水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다. 풍수이론에 따르면 수구는 명당앞을 흐르는 명당수가 합해져서 밖으로 흘러 나가는 것을 말한다. 청룡과 백호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수구가 좁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풍수적으로 좋은 땅이 되려면 청룡과 백호 등과 같은 명당주위의 산들이 명당을 안고 둘러싸야 하기 때문에 명당의 왼편과 오른편의 산이 서로 감싸안는 형국이 된다. 따라서 그 사이에 흐르는 물도 청룡과 백호가 서로 안고 있는 좁은 사이를 흐르게 된다. 이렇게 명당수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 흘러가는 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좌우의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경우에 흔히 “수구가 잘 짜여져 있다”, 혹은 “수구가 잘 여며져 있다”는 표현을 쓴다. 반면에 청룡과 백호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이로 물을 흐를 때는 “수구가 벌어졌다”는 표현을 쓴다.

수구가 좁게 잘 짜이면 청룡, 백호가 잘 감싸기 때문에 명당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의 방어에 유리 할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 반대로 수구가 벌어져있으면 좋은 물은 그만큼 쉽게 빠져나간다. 좌우의 산들이 잘 감싸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명당

49) 『正祖實錄』 卷54 24年 6月 壬子.

이 외부에 쉽게 노출된다.

풍수에서 물과 수구는 주로 재물을 상징한다. 수구가 좋으면 재물이 쌓이고 수구가 나쁘면 재물이 흩어진다고 해석한다. 이런 까닭에 수구는 가급적 좁은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다. 또 수구 부근에 있는 산이나 언덕, 혹은 바위를 ‘水口砂’라 불렀고, 이 수구사의 유무, 종류나 생김새에 따라 길흉화복을 논하기도 한다.

정조가 화성의 明堂水인 유천을 확대하고 준설하여 단순하게 물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게 한 것만 보아도 풍수와 도시계획을 적절히 이용한 대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수는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적극 활용하였음을 알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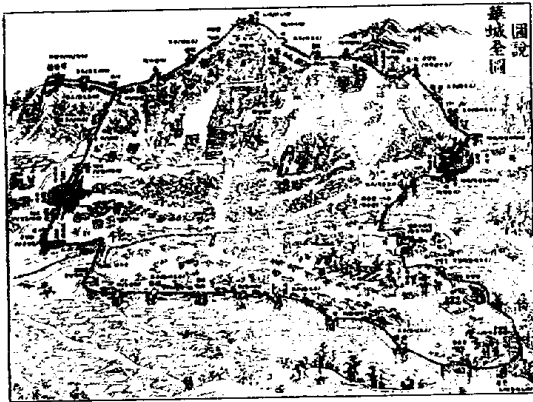


그림 4-4. 도설화성전도(圖說華城全圖)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2001, p3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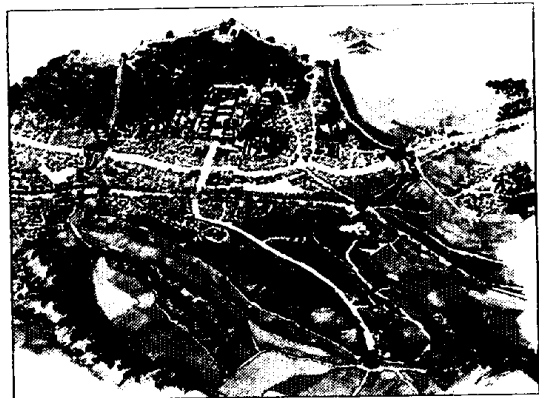


그림 4-5 화성축조 당시모습을  
현대기법으로 재구성한 전경  
[수원시,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2000, p15]

## 2. 華城行宮의 風水地理

華城城役은 단순히 도시 주변에 성벽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축성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행궁을 대대적으로 증축했으며, 또 도심부를 관통하는 하천의 준설과 가로 정비도 함께 진행되었다. 성밖에는 저수지가 조성되었으며 서울로 연결되는 신작로가 열렸다. 이러한 기반 시설 공사와 함께 驛村을 이전하고 시장을 건설하여 화성 신도시가 교통과 상품

의 거점이 되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런 종합적인 작업이 화성 성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이 작업을 통해 화성은 비로소 하나의 대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sup>50)</sup>

이 거대한 화성성역에서 정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연 화성행궁의 건설이었다. 龍이 昇天하고 범이 웅크린 자리로 알려진 명당중의 명당으로 알려진 화성행궁은 정조의 현릉원 참배시에 머무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훗날 자신이 머물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기도 했다. 따라서 정조는 화성성역 자체가 화성행궁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말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수원부가 畿湖의 요충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5,000 병마의 무리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만도 아니다. 한편으로는 仙寢을 위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行宮을 위한 것이다.”<sup>51)</sup>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긴 화성행궁은 조선시대 최대의 행궁 규모로 건설되었다. 1789년 신읍치 이전 후 1790년 9월에 340칸의 행궁이 완성되었다.<sup>52)</sup> 하지만 1794년 화성 축성이 시작되면서 행궁 증축 공사가 함께 시작되어 1796년 화성성역 낙성되었을 때 576칸의 장대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화성행궁을 확장한 것은 정조가 1795년(정조 19)에 모친인 惠敬宮의 회갑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에 내려와 상왕으로 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sup>53)</sup>

화성행궁의 증축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건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공사는 축성 첫 해인 1794년 7월 18일에 시작되었다. 날이 더웠기에 다른 공사는 잠시 중지되었으나 화성행궁의 공역은 진행되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행궁 공역은 10월 초에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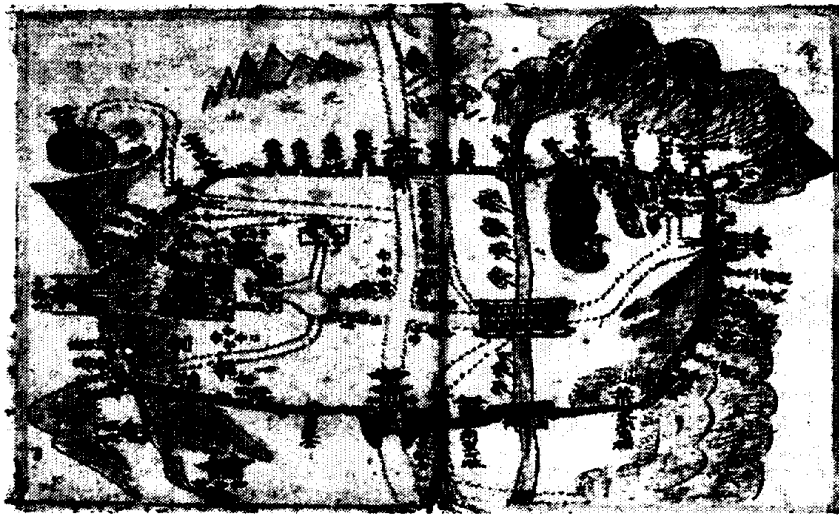
50)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51) 『華城城役儀軌』 卷2, 碑文 華城紀蹟碑.

52) 『水原下旨抄錄』 卷1, 己酉 9月 26日.

53)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그림4-6] 화성도



화성도 (Hwaseongdo) 1800년 (순조 1)에 간행된 『화성성역의궤』의 「華城全圖圖說」의 일부이다. (A portion of the 'Hwaseongdo' map from the 'Hwaseong Seongyeok-ui-gwi' (1800, Seonjo 1), showing the palace complex and surrounding landscape.)

화성행궁의 건물 배치와 주변 경관을 일목요연하게 알려 주는 자료로는, 1800년(순조 1)에 간행된 『화성성역의궤』의 「華城全圖圖說」<sup>54)</sup>과 작자미상의 규장각 소장본 「華城行宮圖」가 있다.

이들 자료에 묘사된 화성행궁의 전체 그림을 보면, 행궁은 팔달산 정상 서장대 아래의 산기슭을 중심으로 경사지가 펼쳐지고, 시가지가 열리는 곳의 평지에 위치해 있다. 성내 중심부를 이루는 곳에 자리잡은 행궁은 그 우측 뒷편에서 시냇물이 앞쪽으로 흘러내려, 전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는 형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 그 후편의 산기슭은 물론 좌·우의 담장 내외에는 소나무·버드나무 등을 비롯한 여러 수종을 식수하여 아름답고 운치있는 조경을 이루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팔달산에서 화

54) 『華城城役儀軌』 卷首 圖說.

성행궁의 봉수당은 풍수적 관점에서 불 때 기가 운집되는 명당으로 판단된다.

화성행궁은 앞쪽으로 긴 장방형이며 홍전문을 지나 정면 중앙에 안으로 약간 들어간 곳에 정문인 新豐樓가 있고, 신평루의 후면으로 正西 방향에 左翊門, 그 뒤로 中陽門과 奉壽堂이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신평루에서 좌익문·중앙문·봉수당은 화성행궁 배치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건물들은 이 중심축의 좌우에 약간 비대칭적인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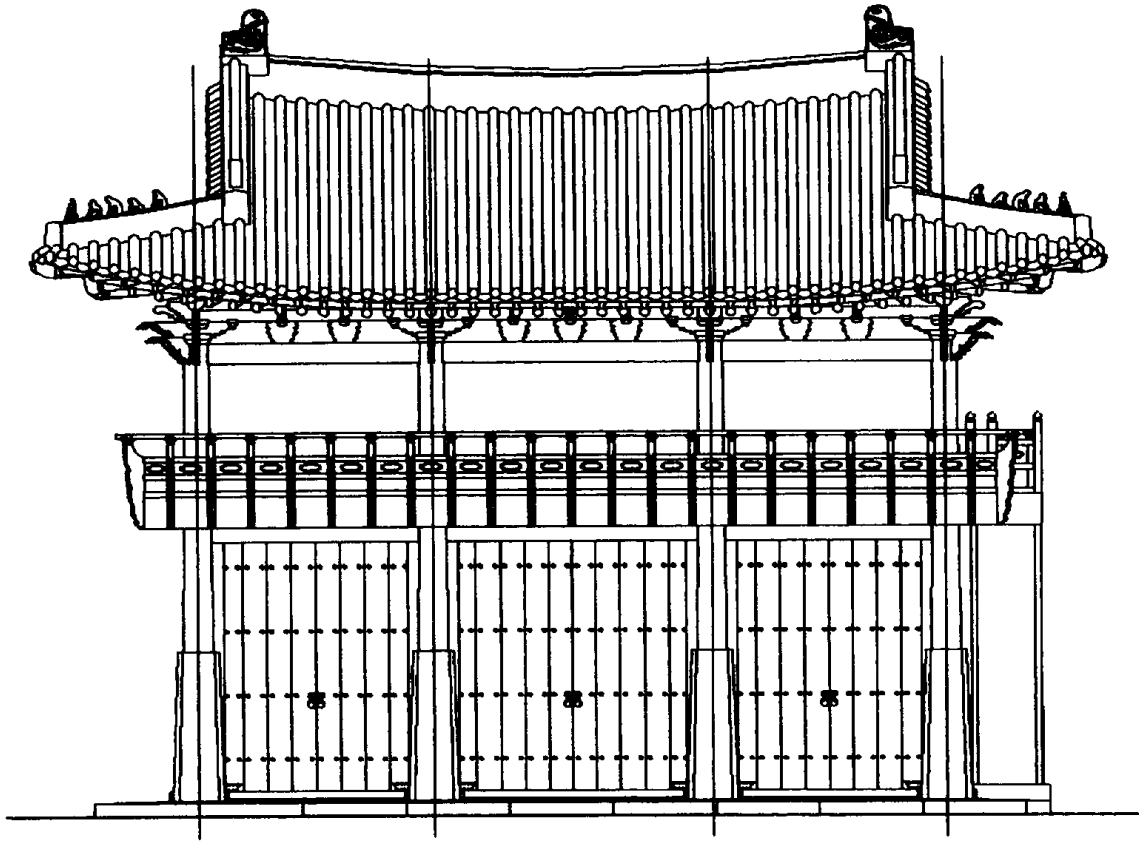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공간 구조를 이룬 화성행궁은 일반 행궁과는 달리 正宮의 ‘三朝三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행궁은 대체로 100칸에서 150칸 내외의 크기를 지니고 있기에 사대부 가옥을 약간 확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화성행궁은 정궁에서 취하고 있는 삼조, 다시말해 外朝·治朝·內朝의 공간으로 조영되었다. 이것이 화성행궁이 일반 행궁의 격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궁궐을 삼등분하면 앞쪽으로 외조가 자리잡고 있는데, 외조란 ‘闕內各司’를 의미하는 것으로 홍문관·승정원·내자시·사복시·승문원 등 임금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다. 이러한 정궁의 외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물들이 바로 남북군영·서리청·비장청·집사청·외정리소 등의 건물이다. 이 기관들은 행궁을 유지하고 왕과 화성유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다.

행궁 입구 전면에서 보면 좌측으로 신평루보다 훨씬 앞쪽으로 네모진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南軍營, 그리고 우측으로는 같은 형태의 北軍營이 대칭을 이룬 가운데 마주 보게 구성되어 있다. 좌측의 남군영 뒤에는 書吏廳·裨將廳이 내담장을 사이로 직결되어 있고, 이보다 행랑이 옆으로 조금 길어지면서 外整理所가 있다.

행궁 입구의 우측으로는 정문인 신평루보다 앞쪽으로 불쑥 나와 네모진 담장이 쳐진 남군영과 대칭을 이루는 위치에 7자집인 북군영이 자리잡

[그림 4-7] 신평루 입면도



왔고, 그 뒤로는 마당을 사이에 둔 좌·우 두 채의 執事廳이 있다. 그 뒤로는 10여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직사각형의 빈마당이 행각 등으로 4면이 둘러싸인 곳이 나온다. 이 마당 북쪽(우측)에는 于華館이라는 불리는 客舍가 담장쪽으로 붙어 서있고, 이 마당의 뒷편으로는 네모난 작은 연못이 파져 있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마당을 지나면 ㄱ자형의 洛南軒이 북쪽을 향하여 건립되어 있다.

治朝의 공간으로는 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이 자리잡고 있다. 봉수당은 평상시에는 화성유수가 집무하고 왕이 臨御時에 정전으로 사용되었다.

內朝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넓은 마당을 갖춘 維與宅, 그 뒤로 福內堂이 이어져 있으며, 복내당의 우측으로는 긴 행랑을 통하여 長樂堂이 있다. 또 행궁 뒷편의 산기슭은 물론 담장내외에는 나무를 심어 아름답고 운

치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조가 화성행궁으로의 幸行時에 편한 휴식을 주고자 했다.

이와 같이 화성행궁은 팔달산 기슭, 성내 중심부를 이루는 평지에 東向을 하고 앉아서 신평루·좌익문·중앙문·봉수당 등의 건물이 중앙의 동서방향의 중심축을 이루고, 그 좌우로 여러 건물들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장청 좌측의 별채와 행궁 후면 팔달산 기슭에 위치한 미로한정·내포사 등까지 포함하여, 화성행궁을 구성하는 독립된 건물들은 행랑을 제외해도 22채나 이를 만큼 매우 웅장하면서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운치있는 전체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행궁의 주요 건물들은 몇 개의 廻廊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경유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듯 화성행궁은 서울의 正宮의 제도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그러한 모습은 화성행궁 입구에서부터 다시금 강조되어진다. 현재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평루 앞에는 복개된 도로로 華西門에서 八達門을 지나 도청 앞길까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예전 화성행궁 앞은 明堂水가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길을 잡은 것은 명당 앞으로 물을 지나가게 하여 물을 유청하게 두른다는 풍수적인 의미 때문이다. 동시에 행궁을 다른 영역과 경계짓는다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명당수 위로 新豐橋가 있고 신평교 후면에 紅箭門을 세웠다. 홍전문 뒤로 현재도 남아있는 槐木(느티나무) 세 그루가 화성행궁을 호위하듯 서 있다. 삼조삼문의 첫 번째 문인 신평루 앞의 이와 같은 조경은 바로 正宮의 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어느 궁궐이던지 정문 앞에는 괴목이 있고 정문 앞뒤로 명당수와 다리가 있기 마련이다. 물론 화성행궁이 정궁과는 다르기에 순서상의 차이는 존재한다. 즉 명당수와 괴목 그리고 다리가 정문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일반 정궁의 제도이나 화성행궁은 약간의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이는 정궁과 행궁의 차이를 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화성행궁의 풍수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서 설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겠다.

## 第2節 水原 新邑治 造成

### 1. 水原 新邑治의 地理的 條件

1794년(정조 18) 1월부터 1796년(정조 20) 9월까지의 화성성역은 조선시대 새로운 신도시의 창출과 아울러 문화군주 정조의 위상을 올려놓았다. 이는 앞서의 내용과 같이 정조의 왕권강화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양기풍수로서 도시의 기능을 18세기 시대적 변화에 맞는 도시형태를 변모시킨 것이다. 이러한 화성 건설은 기본적으로 신읍치의 이전속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다시 말해 현릉원이 천봉된 구 수원부 읍치인 花山에서 팔달산 아래의 신읍치로 도시 자체가 이전했기 때문인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도시의 이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정조의 수원 신읍치 조성은 막대한 예산과 국가적 지원속에 이루어졌다.

팔달산으로의 수원 신읍치의 도시 이전은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서울 남쪽의 많은 읍치 조성 공간이 있음에도 현재의 수원 자리로 이전한 것은 18세기 시대 상황에 따는 풍수지리의 인식 변모속에서 가능했다. 즉 개인의 吉凶禍福 중심의 음택풍수가 아닌 도시 전체 및 국가의 기능을 강조하는 양택풍수의 사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1789년(정조 13) 7월 11일 顯隆園 遷園과 新邑治 조성 대책을 관장하기 위하여 경기관찰사에 서유방, 수원부사에 조심태를 임명하였다. 영의정 김익은 원소를 옮기기로 결정하였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邑治를 옮기는 일이라며 정조에게 신읍치 선정을 간청하였다. 이에 정조는 이로부터 4일 후인 7월 15일 천봉에 따른 신읍치를 구읍치가 있는 花山 일대에서 八達山 일대로 옮길 것을 결정하였다. 즉, 신임부사 조심태는 ‘팔달산 아래의 땅이 국세가 크게 트여 가히 큰 고을을 조성하는데 마땅한 곳’이라는 狀啓를 올린 뒤였다.<sup>55)</sup>

수원 신읍을 팔달산록으로 정하니 창덕궁에 수원 신읍의 거리는 70리였다. 이때를 전후해서 정조는 신읍치로 이전에 따른 부내에 새로운 官衙와 民戶를 건설하고, 도시기반시설을 營建하기에 앞서 민생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의 행정적인 읍민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교하였다.<sup>55)</sup>

첫째, 구읍민들의 이주비용으로 均役廳의 돈 10만 냥을 수원부에 내려 주어 백성을 옹기고 곡식을 옹기는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할 것.

둘째, 수원부에 맞닿은 廣州府의 日用·松洞 양면을 수원부에 移屬시킬 것.

셋째, 수원부에 구금되어 있는 모든 죄수들은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특사로 석방시키는 한편, 수원읍민으로서 유배 중에 있는 자도 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모두 특사 귀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각 유배지의 수령·방백에게 下命하고, 이러한 뜻을 민간에 널리 曉諭토록 할 것.

넷째, 원소 부근의 面里와 신읍치로 이주하는 민인들에게 10년 동안 무과세의 특전과 500결을 급복하고 신환곡을 탕감해 주었으며, 또한 수원부의 각 면리 민인들에게는 復戶 1년을 급여하고 구환곡 중 가장 오래된 환곡 3년조를 탕감케 해줄 것.

그리하여 원소의 산역이 시작되던 정조 13년 7월 하순부터 구 읍치의 관아와 민가, 묘소의 철거작업이 시작되어 10월 4일 양주 배봉산의 영우원을 떠난 영구가 10월 7일 신원인 화산에 무사히 도착, 현릉원에 안장됨에 따라 신읍치의 건설계획도 한층 가속화될 수 있었다. 현릉원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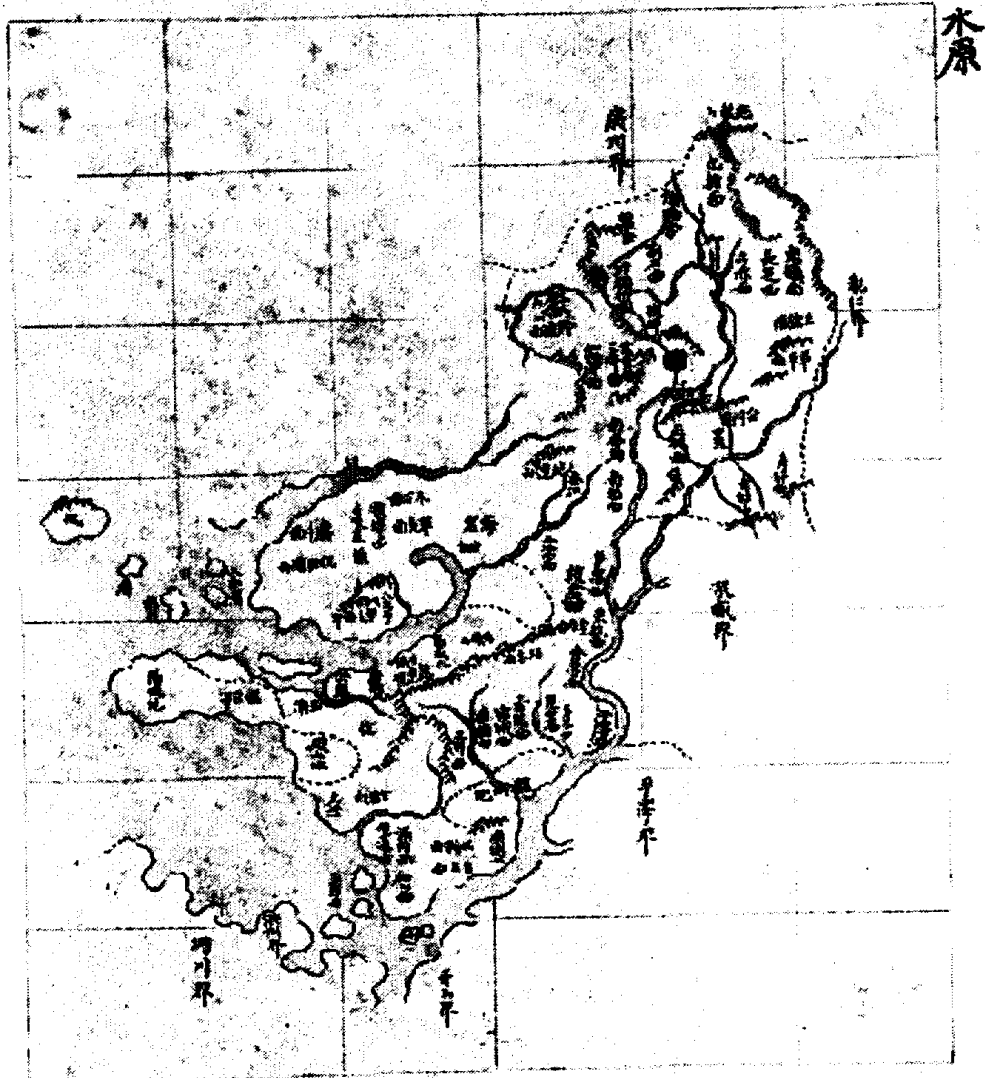
와 왕의 능행에 대비, 신읍치에 수원행궁·향교를 비롯한 과천·시흥에도 행궁을 설치하고, 沙斤坪에는 倉舍, 安養站에는 撥舍, 노량진에는 鎭

55) 『正祖實錄』 卷27, 13年 7月 15日 己亥.

56) 『正祖實錄』 卷27, 13年 7月 15日 己亥.

[그림4-8] 수원도

수원부지도 21



조선지도 176년이후 37.6x49.8cm 서문대역과 규장각  
 수원부의 읍지를 옮기며 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각 관공청의 명칭이 차라리고 특히 방화·도복에 의하여  
 그 당시 때문에 전라 실제 모습과 같은 수원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亭, 독진에는 浮橋를 각각 설치했으며, 도로 보수와 교량의 영건작업도 서둘러 진행하였다.

수원부는 수원부사 조심태의 견해대로 三南으로 통하는 요로이다.<sup>57)</sup> 조선시대 삼남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큰길은 세 곳이었다. 하나는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의주로 연결되는 義州大路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충주를 지나 안동이나 상주, 대구로 나가는 左路, 나머지 하나가 서울에서 수원을 경유해 공주, 전주로 해서 나주로 이어지는 右路이다.

이 가운데 의주대로는 주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이용했던 소위 使行路였다. 좌로인 嶺南大路는 영남의 많은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치러 오는 길이었다. 이 길은 산이 많은 관계로 사람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물자를 유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비해 호남과 서울을 잇는 우로는 비교적 지형이 평탄해서 물자 소통이 원활한 편이었다.<sup>58)</sup>

조선 중기까지는 좌로가 중요한 간선도로 역할을 하였으나 17세기 이후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로의 역할이 새삼 증대되었다. 사람의 이동도 많았지만 충청·전라지방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자의 유통이 늘었기 때문이다. 수원은 서울 아래 이 우로의 길목에 자리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이점에 비해서 구 수원읍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 쌓인 궁벽한 산골에 놓여 있었다. 산으로 막힌 곳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유리하고 쓸데없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사방의 산등성이를 따라 성벽을 쌓으면 지형의 이점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지형은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군사적인 방어를 염두에 두던 중세적 都市觀으로 보아 적합한 지세라고 하겠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히면 길을 내기 어렵고 물자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sup>59)</sup>

57) 『正祖實錄』 卷30, 14年 5月 17日 丁酉.

58) 趙炳魯, 「조선후기 交通發達에 관한 研究 :교통수단으로서의 驛馬確保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1994. p.57

59)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pp.123-146

舊 水原은 도성을 수호하는 도호부의 하나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해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효과적인 지세를 선택한 것이다. 도시 북동쪽에는 주산이 되는 花山이 있고 그 줄기가 좌우로 길게 뻗었으며 남쪽에서도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案山에 해당하는 弘法山이 놓여 있다. 산으로 둘러 쌓인 지형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도 제한을 받아서 도시 중심부에는 객사 앞을 지나는 큰 길이 하나 나있는 정도였다. 사람의 원활한 소통보다는 도성을 지키는 군사도시답게 산으로 둘러 쌓인 폐쇄적인 형세를 취하고 있던 것이다.<sup>60)</sup>

여기에 비해 새로 옮겨 온 팔달산 아래는 삼면이 넓게 개방돼 있고 지형도 평탄하여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는 큰 길을 내기에 알맞았다. 도시 이전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다녀온 이곳이 삼남의 대로로 사람들의 생활과 제반 物理가 크게 승하다는 점을 이점으로 들었다.<sup>61)</sup>

신읍치에 대한 사대부들의 판단 역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司諫 李運斌은 水原의 새 고을은 園寢을 옮겨 모신 뒤에는 그 형편이 특별한 데다가 三南의 요충지이고 산성의 지리적인 이점을 끼고 있으니, 거처할 백성을 모으고 읍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신읍치가 교통의 요지임을 말해주고 있다.<sup>62)</sup>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17세기 초 이래 나타난 실학적 지리관의 영향이 컸다. 16세기말에서 17세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란이 일어나자 지형 등 자연에 대한 재인식을 가져왔음은 물론, 지역간의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져 국토의 재편성을 가져왔다. 또한 17세기 실학적 지리관의 발달로 인한 지리학의 다양한 발달, 서양 세계에 대한 지리적 지식과 서양 지리지식의 유입 등으로 지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 또한 17세기 후반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로 인한 영토의식의 성장 등이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속에서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 구조와 지역 구조 변화는 국토와 자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스럽게

60) 김동욱, 상계서, p. 129

61) 『正祖實錄』卷27, 13年 7月 15日 己亥.

62) 『正祖實錄』卷32, 15年 2月 13日 戊午.

당대 풍수지리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여 주었다.<sup>63)</sup>

결국 정조는 수원 신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선정할 것은 풍수적인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명실상부한 삼남의 교통중심지이자 경제도시로 키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 2. 柳馨遠의 水原 新邑治 地理觀

정조는 팔달산 아래로 정하자마자 수원의 읍세를 확장하기 위해 광주군에 속해있던 日用, 松東面 두 면을 수원부에 흡수시키게 하였다. 수원읍을 팔달산으로 옮기기 이전부터 정조는 새로 이전되는 새 읍터를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현릉원의 천원과 읍치의 이전, 그리고 신도시의 건설은 유형원의 先見之明과 經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수원 신읍치 구성에 관하여 자신이 유형원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柳馨遠의 『礪溪隨錄補遺』에 수원의 邑治를 北坪으로 옮기고 城池를 건축해야 한다는 논설이 있다. 1백 년 전에 마치 오늘의 이 역사를 본 것처럼 미리 이런 논설을 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sup>64)</sup>

정조가 도움을 받았던 반계 유형원은 자신의 저서인 『礪溪隨錄』 보편에 팔달산의 지리적 위치를 논하면서 이곳이 도시를 건설하여 대도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원도호부에 광주 下道 一用面 등을 떼어 붙이고, 북쪽 들 가운데 臨川의 지세를 보고 생각하니 지금의 읍치도 좋기는 하나 북쪽들은 산이 크게 굽고 땅이 태평하여 농경지가 깊고 넓으며, 규모가 宏遠하여 성을

63) 楊普景, 「조선시대 자연 인식 체계」, 『韓國史 市民講座』 14, 一潮閣, 1994.

64) 『正祖實錄』 卷38, 17年 12月 8日 丁卯.

쌓아 읍치로 삼는다. 참으로 大藩鎮이 될 수있는 기상이다. 그 땅의 내외에 일만호는 수용할수있을 것이다.”<sup>65)</sup>

또한 정조는 1793년 12월 10일 신료들간의 대화에서도 반계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화성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66)</sup> 팔달산 아래에 펼쳐진 새로운 邑基는 구 수원에 비해 지형상 훨씬 광활하고 局勢의 규모가 크고 넓어, 이곳에 축성하여 읍치로 삼는다면 실로 一萬戶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대도회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반계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읍치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천의 형세, 田野와 人民, 關防과 城池, 도로의 要害 들을 참작해서 마땅한 곳에 정해야 한다고 주장<sup>67)</sup>하여 당시에 유행하던 전통적인 풍수지리적인 입지관념을 뛰어넘어 읍치의 설치요건으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지형의 적절함이나 부적절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행정구역의 확정 요건을 지형상 田民이 크게 번창하여 대도회가 될만한 곳은 大府 또는 道護府으로 하고 그 지형상 田民이 그저 번창할 만한 곳은 府로, 그 다음의 것은 모두 郡으로, 또한 郡도 될 수 없는 곳은 縣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반계의 주장에는 陽基의 경우, 종래의 전통적인 읍치의 이상적인 조건이었던 山水環抱와 같은 풍수지리적 조건보다는 도로의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역이 양기로서 적절한 곳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 넓은 논과 들이 펼쳐져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지형적 조건이 갖춰진 공간을 염두에 둔 생각이었다. 수원 화성의 입지는 반계가 주장하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18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의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화성의 입지는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상에 어울리는 곳으로 교통과 상업거점으로 발전할

65) 柳馨遠, 『礪溪隱錄』 補遺 卷1 郡縣制, 水原都護府.

66) 『華城城役儀軌』 卷3 傳教 癸丑年 12月 初10日.

67) 유형원, 상계서, 水原都護府.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sup>68)</sup>

정조는 탁월한 유형원의 경륜에 감명을 받고 “유형원의 『반계수록』 보유에 수원의 읍치를 북평으로 옮기고 성지를 건축해야 한다는 논설이 있는데 1백년 전에 마치 오늘의 역사를 본 것처럼 미리 이런 논설을 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하였다. 그리고 수원에 성곽을 축조하기에 앞서 수원의 이전을 주장한 유형원에 대해 吏曹判書 및 成均館祭主를 추증하고 이조로 하여금 그 후손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유형원이 제안한 수원 읍치의 이전안은 정조 때의 읍치 이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정조가 이미 사전에 현릉원의 천원과 함께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실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원화산이 효종의 장지결정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관방 지역으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수원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만 갖추고 있었지만 새로 이전되는 화성은 화산에 비해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조건들을 더 잘 갖추고 있었다.

### 3. 水原 新邑治의 風水地理

유형원의 수원 신읍치 구상이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을 고려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풍수지리적 변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風水地理觀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모되어지는 것이다.

도시는 가급적 하나의 주산을 두었으며 관청은 주산 아래 남향으로 배치되었고, 그 앞에는 동서 방향으로 간선도로를 두었다. 관청의 으뜸인 객사를 중심으로 수령이 집무를 보는 동헌과 향청·지방청들을 자리잡는 것이 도시의 기본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의 외곽, 주산의 서쪽이나 동쪽 기슭에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문묘를 설치하도록 했고, 반대쪽에는 社稷壇을 두고 북쪽 주변에는 城隍壇과 厲壇을 두도록 했다.

---

68) 成東桓, 「顯隆園 遷園과 華城建設을 통해 본 正祖의 風水地理觀」, 『韓國思想史學』 2001 p.17

관청의 坐向은 왕이 북쪽을 등지고 南面하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대신 집행하기 위해 남향을 하였다. 또 객사를 고을의 으뜸으로 삼고 향교와 사직단, 성황단 여단을 마련한 것 모두가 유교적인 예의 질서를 표방하기 위해서였다.<sup>69)</sup>

수원 신읍치의 경우 역시 도시의 기본적인 구성은 조선 초기부터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 계승했다. 팔달산이라는 주산을 뒤에 두고 그 아래 관청을 배치했으며, 관청 앞 직각 방향으로 간선도로를 설치하고 향교와 사직단, 여단과 성황단을 모두 일정한 원칙 아래 배열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수원 신읍치는 종래의 도시와 다른 좌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도시들이 전체적인 좌향이 남향인데 반해 수원 신읍치는 東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청이 동향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관청과 직각 방향으로 형성되는 간선도로는 자연히 남북 방향으로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도시가 남향을 하고 간선도로가 동서 방향으로 놓인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팔달산의 산세를 보면, 물론 동편 기슭이 가장 넓어서 고을이 들어서기에 알맞았지만 남쪽 기슭이라고 해서 고을이 들어서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다. 만약 수원 신도시의 계획자들이 유교적인 예의 질서를 준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면 팔달산 남쪽 들판에도 도시를 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남쪽 기슭 일대는 토질이 비옥했으며 이미 약간의 民家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팔달산 동쪽 기슭에 동향해서 관청을 배치한 데는 팔달산의 전반적인 風水地勢와 서울로 연결하고자 하는 남북 간선도로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수원 신읍치의 전체적인 지형적 조건은 남동쪽이 조금 열려 있을 뿐, 주변모두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海東地圖』 중의 『水原府』 지도에는 읍치가 城隍山, 道高山, 南山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잡고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있다. 읍치를 에워싼 이들 산 바깥으로 물길이 서에서 동

---

69) 김동욱, 전계서 pp.100-147

으로 흐르다 읍치의 水口방향에서 다시 南으로 흘러간다.

『大東輿地圖』의 수원부근을 보면 구읍치의 花山 일대는 산으로 에워싸여 있다. 顯隆園 주위에 산세를 과장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 지세와는 차이가 나지만, 수원 신읍치는 상당히 개방된 지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72년에 제작된 수원부지도는 花山을 중심으로 맞은 편에 남산이 자리잡고 독산성 사이로 물길이 지나고 있다. 산과 물의 짜임새가 현릉원과 건릉을 에워싸고 감아 돌아가 풍수적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 지도는 구 읍치의 풍수적 입지조건을 약간 과장하여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구 읍치 화산의 지세표현은 四神砂에 의해 구획된 폐쇄적인 공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폐쇄적인 공간은 풍수의 藏風局面을 충족시키는 지세가 된다.<sup>70)</sup>

장풍국면이란 산이 명당을 잘 環抱하는 지세, 즉 主山을 중심으로 양옆의 산이 에워싸고 앞의 산이 앞을 가려주는,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의 조건을 갖춘 곳을 말한다. 이에 반해 수원 신읍치는 남북방향에 산이 없어 훤히 트여 있다. 서쪽 팔달산이 가장 높고, 맞은편 동쪽이 약간 낮은 산으로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수원 십읍치에는 큰 강은 없고 작은 하천이 여러 줄기 흐르고 있는데, 이들 내는 대부분 광교산에서 비롯되어 발원하는 것이다. 신읍치를 중심으로 광교산과 오봉산에서 흘러내린 하나의 물줄기가 팔달산 뒤편으로 흐르면서 넓은 들을 펼치고 있고, 그 물줄기가 흐르게 되어 있다. 훗날 이 물줄기에 제방을 쌓아 萬石渠와 祝萬堤를 조성했다.

또 한줄기의 물길은 광교산에서 뺨어내린 柳川이 된다. 이 물길은 북에서 남으로 뺨어 신읍치의 중앙을 지나고 있다. 나머지 다른 하나의 물줄기는 역시 광교산에서 뺨어 내린 물길로 청명산쪽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이 세 줄기의 물길은 모두 社倉이 있는 安寧에서 合水되어 독산성쪽으로 흘러간다.

지세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광교산에서 흘러내린 세 줄기의 물길이 흐

---

70) 成東桓, 전계서 p.17

르는 가운데에 신읍치가 자리잡고 있으며 광교산에서 뻗어온 팔달산을 주산으로 삼아 기대고(背山) 앞으로는 유천을 끼고(臨水), 동으로는 광교산에서 뻗어온 낮은 언덕들을 案山으로 삼아 자리를 잡았다. 이와 같이 구 읍치의 花山 일대와 팔달산 동쪽 일대의 지세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구읍치의 화산과 신읍치는 서로 공통적으로 산을 등지고 물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지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큰 지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花山은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형세를 하고 있고 신읍치는 左右 山의 環抱가 부족하여 남북이 많이 열려 있다.

앞서의 내용과 같이 구읍치는 폐쇄적인 공간이기에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어의 이점이 있고, 주민들의 흩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읍치의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통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화성은 좌우 산의 환포가 부족하지만 局勢가 구읍치에 비해 훨씬 크고 넓어, 너른들을 끼고 있으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을 향하여 도로가 시원하게 열려있고 남으로는 삼남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쉽게 펼쳐지는 요충에 걸맞는 지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세의 변화를 통해 볼 때 18세기 후반 상업화의 진전에 따라 풍수적으로 이상적인 읍치의 조건이 전통적인 폐쇄적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수원 신읍치의 立地가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는 변화된 立地觀의 공간적 적용이라 볼 수 있다.

### 第3節 顯隆園 遷園의 展開科程

#### 1. 顯隆園 遷園의 風水的 背景.

수원 신읍치 조성과 화성 건설은 18세기 시대적 배경과 정조의 왕권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君師 혹은 聖君으로 인식하며 초월적 군주로서의 이미지를 신료들과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그의 이러한 의도는 다분히 자신의 부친인 사도세자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다시말해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밝히고자 함이었고, 또한 훗날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는 정치적 결단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정조의 이러한 사도세자 追崇事業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사도세자의 園所를 천봉하는 이이었다. 사도세자의 원소인 永祐園은 풍수적으로 매우 凶地라고 인식되어 왔으며, 局面의 협소함과 구차함은 조선의 왕세자의 능원이라 하기에는 모자람이 많았다.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은 선왕을 명당에 모심으로써 왕업의 무궁한 계승, 발전과 왕족들의 무병장수를 바랬다. 그래서 왕들이 성묘하기에 알맞은 거리인 한양100리 이내에서 명당을 찾았다.<sup>71)</sup> 하지만 이것은 원칙은 아니었다. 다만 한양 100리 이내에 陵園을 조성하는 것이 후대 왕들의 陵幸을 원활히 하고,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형편을 쉽게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능원은 인조의 부친인 元宗의 莊陵과 정조의 부친인 思悼世子(정조 즉위 후 藏獻世子로 추존)의 顯隆園을 제외하고는 한양 100리 이내에 있었다.

정조의 현릉원 천원은 정치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부친에 대한 효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도세자는 부친인 英祖에 의해 1762년 6월 28일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당시 11살의 나이였던 世孫 정조는 가슴의 限으로 남았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으로 치부될 일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정조는 앞으로 국왕이 될 인물이었기에 명분상 사도세자의 伸冤이 필요했다.

정조는 25세인 1776년에 국왕으로 즉위하였고, 1789년(재위 13)에 왕권의 안정을 어느 정도 이루자 戚臣인 朴明源의 상소를 계기로 당시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永祐園을 옮기기로 하였다. 실제 정조는 영우

---

71) 成東桓, 전게서, p.17

원의 형국이 열고 좁다고 여겨 즉위 초부터 이장할 뜻을 가졌으나, 너무 신중한 나머지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박명원은 정조의 의중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오늘의 신하된 자로서 만세의 대계를 생각할 때 마음을 끝까지 쓰지 않을 수 없고 의리로 보아 감히 스스로 숨길 수 없기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신은 본래 堪輿에 어두워 귀머거리나 소경과 일반이므로 다만 사람마다 쉽게 알고 쉽게 볼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첫째는 띠가 말라죽는 것이고, 둘째는 靑龍이 뚫린 것이고, 셋째는 뒤를 받치고 있는 곳에 물결이 심하게 부딪치는 것이고, 넷째는 뒤쪽 낭떠러지의 石築이 天作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써 볼 때 風氣가 순하지 못하고 土性이 온전하지 못하고 지세가 좋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臣民들의 지극한 애통스러움이 되는데, 더구나 뱀 등속이 局內 가까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丁字閣 기와에까지 그 틈새마다 서려 있는데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옛 長陵에 穴道까지 침범했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 이미 많이 있고 보면 지극히 존엄한 곳까지 침범하지 않았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상께서 갑오년에 園을 처음으로 참배하신 때로부터 병신년에 즉위하신 뒤에 이르기까지 걱정하신 일념이 오직 원소의 안부에 계시어…… 우리 성상께서 외로이 홀로 위에 계시며 해는 점점 서산으로 기울어가는데 아직까지 뒤를 이을 자손이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널리 물으시고 地師들을 널리 불러모아 길흉을 물으시어 神道를 편안하게 하시고 성상의 효성을 펴시어 천추만대의 원대한 계책이 되게 하소서.”<sup>72)</sup>

72) 『正祖實錄』 卷27, 13年 7月 11日 乙未.

이와 같은 박명원의 상소는 정조의 영우원 천봉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정조는 그 자리에서 천원을 결정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결정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대신·關臣·예조당상과 종친부·의빈부·삼사의 2품 이상을 熙政堂으로 불러 접견하고 박명원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대신과 예조 당상들이 한 목소리로 찬성하였으며, 정조는 영우원의 풍수지리상 문제점을 논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영우원을 천봉할 의지가 있었음을 신료들에게 천명하였다.

“대체로 壙中の 흙은 기운이 없는 죽은 흙이니 지극히 말하기 곤란한 염려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堪輿家들이 향용하는 말로 말하더라도, 佩鐵의 內盤으로는 甲坐가 되고 外盤으로는 卯坐가 되며 辛戌方得水이고 亥方得破이니, 갑·묘·해가 모두 木이다. 신술방의 물은 바로 이른바 黃泉得水로서 內明堂에 물이 없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물만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더구나 乙入首로서 龍勢가 더욱 논할 만한 것이 없는데이겠는가. 갑오년(1774, 영조 50)에 省墓하고 나서부터 옮겨 모셔야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새로 정하는 자리가 지금의 자리보다 천만 배 나은 뒤에야 거의 여한이 없을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 行用하는 地師로서 누가 땅속의 일을 분명히 알 수 있겠는가.…… 내가 즉위한 이후로 14년 동안에 오직 금년만이 年運·山運·園所 본인의 命運이 上吉함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더욱더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도위의 상소를 보고 여러 경들의 말을 듣건대 宿願을 이룰 수 있겠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sup>73)</sup>

정조는 어느 풍수가보다도 風水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영우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는 정조가 일찍부터 풍수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선왕의 陵寢이 길지가 아님을 지극히 한스럽고 원통하게 생각

73) 『正祖實錄』, 전개서

하여, 매양 명절에 省墓를 하고 산마루와 기슭을 두루 살피면서 두렵고 불안하여 편히 쉬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풍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본래 堪輿家의 학문에 어두워 그것이 무슨말인지 알지 못하였다. 갑오년(1774, 영조 50)는 능원에 성묘를 한 뒤로부터 은근히 뉘우치는 뜻이 있어 처음에는 옛사람의 지리를 論한 여러 가지 책을 취하여 진심으로 연구하여 그 宗旨를 얻은 듯하였다. 그래서 先園의 龍, 穴, 砂, 水를 가지고 옛날의 方術과 참고하여 보았더니, 하자가 많고 吉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갖지 못하여 세속의 地師로서 안목있는 자를 널리 불러 그사람의 造詣를 시험해 본바 그들의 언론과 지식이 옛 방술에 어긋나지 않아 곧 앞뒤로 전날 陵園을 논한 것을 찾아 살펴 보았더니 그들의 논한바가 상자에 넘칠 정도였다.”<sup>74)</sup>

이와 같이 정조는 풍수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직접 風水書를 읽고 연구를 하였다. 그렇기에 박명원의 상소가 있자마자 영우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천봉하기 위해 전국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치밀하게 준비하게 한 것이었다.

정조는 신료들에게 천봉을 지시하게 하면서도 자신이 조사한 것을 아울러 알려주었다. 정조는 이전 자료들을 검토하여 전에 封標해 두었던 곳으로 文義 兩星山 亥坐의 언덕은 예전부터 좋다고 운운하는 자리이지만 祖山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이 흠이어서 답답하게 막힌 기색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질과 물이며 龍勢도 결코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고 단정하며 이 지역은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長湍 白鶴山 아래의 세 곳은 局勢가 혹은 협소하기도 하고 혹은 힘이 없고 느슨하기도 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光陵 좌우 산등성이 중의 한 곳인 達摩洞은 양성산 해좌 언덕과 같이 좋은 자리이기

---

74) 『弘齋全書』 卷57, 雜著4 「遷園事實」.

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달마동의 한 가운데가 절터였기 때문이다. 정조는 훗날 조선시대 왕들중 가장 불교를 이해하는 왕으로 변모하였지만 이 시기 가지만 하더라도 불교를 완전히 인정하는 편은 아니었다.<sup>75)</sup>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神堂의 앞이나 佛寺의 뒤나 廢家 또는 古廟에 묘를 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정조는 달마동 자체를 꺼려하였던 것이다. 이 밖에 용인과 獻陵(태종) 局內의 梨樹洞과 厚陵(정종) 局內의 두 곳, 康陵(고려 성종) 白虎 쪽, 加平의 여러 곳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sup>76)</sup>

그러나 정조는 유일하게 수원 읍내의 능원지를 칭찬하였다. 당시 수원 읍내에 國陵으로 置標 하였던 곳은 세 곳이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는 수원부 官衙 뒤의 봉표처를 선호하였다.

“오직 水原 읍내에 봉표해 둔 세 곳 중에서 官家 뒤에 있는 한 곳만이 前人들의 명확하고 적실한 증언이 많았을 뿐더러 玉龍子가 이른바 盤龍弄珠의 형국이다. 그리고 연운·산운·본인의 명운이 꼭 들어맞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하늘의 뜻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이름이다.”

이 같이 정조는 수원부 관아 봉표처가 여의주가 희롱하는 천하명당임을 지적하며 다시한번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陵園으로 쓰기 위해 풍수적으로 탁월한 여러 곳을 봉표해 두었다. 그 중 정조시대까지 吉地로 알려져 왔던 곳은 세 곳이었다. 첫 번째 장소는 弘濟洞으로 寧陵이었으며, 한 곳은 健元陵 오른쪽 등성이의 元陵이었으며 마지막 한 곳이 水原府 邑治였다.<sup>77)</sup>

정조는 수원부의 자리를 풍수의 대가인 道禪國師의 말을 빌어 ‘반룡 농주의 형국이다. 참으로 福龍大地로서 龍이나 穴이나 지질이나 물이 더없

75) 김준혁, 「조선후기 정조의 불교인식 변화」, 중앙사론12·13합집 2000.

76) 『正祖實錄』 卷27, 13年 7月 11日 乙未.

77) 『正祖實錄』, 전게서

이 좋고 아름다우니 참으로 천 리에 다시없는 자리이고 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자리이다.’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대를 이어줄 자식을 낳게 해줄 천하의 명당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정조는 일찍 아들의 여의고 15년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마침내 현릉원으로 천원하고 후궁인 綏嬪 朴氏가 잉태를 하여 元子인 순조를 낳게 되었다.

정조는 신료들이 수원부 관아 자리에 대해 尹絳·尹善道の 『寧陵儀軌』를 거론하면서 “내가 수원에 뜻을 둔 것이 이미 오래여서 널리 상고하고 자세히 살핀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라고 강조하였다.

정조는 永祐園의 천원에 있어 제사 의식도 太廟에 버금가는 것으로 大夫의 예를 사용해서 제사할 것을 지시하고 摠護使를 차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총호사는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좌의정과 우의정은 이를 돕도록 하게 하였다.

정조의 이와 같은 의지로서 영우원의 천원 자리인 현릉원 자리는 결정났다. 결국 현릉원의 봉분 자리는 정조의 뛰어난 풍수지리 인식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이다.

## 2. 顯隆園의 風水地理.

顯隆園이 자리잡은 수원 花山은 장헌세자의 영우원 薦奉 이전부터 國陵置標로 정해진 곳이었다. 임란 직후 宣祖가 薨逝했을때 이미 수원부 관아 자리는 국릉으로서 사용되기 위해 지목되었던 곳이었다.<sup>78)</sup>

선조가 1608년 2월 1일 薨逝하자 총호사 許頊은 健元陵 안의 第一岡·第二岡·第四岡과 오른쪽의 第五岡을 살펴보고 제5강을 추천하였다. 당시 제사강은 穴道가 짧고 또 水破가吉하지 못하여 진실로 쓸 수 없다는 이유 등이었다. 결국 술관들의 결정에 의해 제5강으로 결정하였다.<sup>79)</sup> 그렇지만 3월 29일 선조의 능침은 수원부 읍치로 변경 지목되었다. 당시

78) 『新增東國輿地勝覽』京畿, 水原都護府.

79) 『光海君日記』卷1, 卽位年 2月 9日 丙寅.

兪知 崔鐵堅이 상소하여 健元陵의 곁은 先王의 遺命에 관계된 곳이므로 개복해서는 안된다고 상소하였고, 이에 능침을 변경하기로 하였다.<sup>80)</sup>

그러나 최철건의 상소가 있기 전에 奇自獻이 『靑烏經』을 전거로 건원릉 제5강을 반대하였다. 『청오경』에 조상의 분묘 가까이에 장사를 지내면 그 재앙이 兒孫에게 미치게 된다는 구절 때문이었다.<sup>81)</sup>

당시 최철건의 상소에서 대해 수원이 길지라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이곳에 능침을 정할 경우 산성 철거와 민호 이전의 문제점을 들어 건원릉 안의 제5강이나 臨瀛大君<sup>82)</sup> 墓중에서 정할 것을 명하였다.<sup>83)</sup>

이후 孝宗이 1659년 5월 4일 홍서하자, 총호사 沈之源은 풍수에 해박한 尹善道·李元鎭을 산릉 선정에 대동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이들 외에도 예조판서 尹絳과 관상감 제조 이응시 등도 산릉선정을 위하여 열다섯 곳을 돌아보았다. 그 후 6월 15일 윤강과 이응시가 그동안 돌아본 곳을 보고하면서 水原山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수원의 戶長 집 뒷산이 龍穴 砂水가 盡善盡美하여 그야말로 千載一遇의 곳으로 다른 산과는 단연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sup>84)</sup>

이 보고를 받은 현종은 다른 지역보다는 수원을 능침으로 선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宋時烈的 반대로 수원의 능침 선정은 기각되었다.<sup>85)</sup> 송시열은 수원에 능침을 선정했을 경우 수원군민 철거에 따른 폐단을 들었다.

80) 『光海君日記』 卷2, 卽位年 3月 29日 丙辰.

81) 『光海君日記』 卷1, 卽位年 2月 14日 辛未. “嘗聞靑烏經乃地理之祖而有葬近祖墳殃及兒孫之言”

82) 世宗의 第4子로 임영대군의 墓는 현재 의왕시 백운호수 옆에 있다.

83) 『光海君日記』 卷2 卽位年 3月 29日 丙辰.

84) 『顯宗實錄』 卷1, 卽位年 6月 15日 甲辰. “水原戶長家後山 龍穴砂水 盡善盡美 此實千載一遇之地 斷不可比論於他山”

85) 『顯宗實錄』 卷1, 卽位年 6월 16일 乙巳.

“수원은 국가 關防 지대로서 선대왕께서 일찍이 마음을 두셨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헐어버려 군과 민이 살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선대왕의 평상시 뜻이 아니지 않을까 염려이옵니다.”<sup>86)</sup>

이 같은 견해와 덧붙여 송시열은 수원은 그 뛰어난 지세로 보아 지금 비록 잠시 폐지가 되더라도 끝내는 관방이 되고 말 것이기에 능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sup>87)</sup>

그러나 영의정 鄭泰和는 移民의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太僕寺의 둔정이 수원 경내에 많이 있어 訓練都監·摠戎廳의 둔전과 바닷가의 堤堰 쌓을 만한 곳을 모두 백성의 전답과 換給하더라도 수원의 능침 선정에 찬성하였다.<sup>88)</sup>

결국 총호사인 좌의정 심지원,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오준, 산릉 도감 제조 정치화, 호군 이원진 등이 수원 산을 다시 살펴보고 돌아와 서계를 올리니 현종은 수원이 가깝고 흉해가 없다며 효종의 능침을 수원으로 정하였다.<sup>89)</sup>

하지만 계속된 ‘五患의 염려’ 논리를 근거로 수원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송시열의 반대로 7월 2일 현종은 건원릉 서쪽 골짜기와 불암산 화점동 등을 살피도록 명함으로써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sup>90)</sup>

결국 領敦寧府事 李景奭과 李時白의 주장으로 효종의 능침이 수원산에서 건원릉으로 바뀌게 되었다.<sup>91)</sup> 하지만 윤강과 윤선도 및 이원진, 이취만 등의 지관들은 수원의 지세를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윤선도는 산릉 보는 일에 자신을 추천하였던 총호사 심지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원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

86) 『顯宗實錄』, 상계서

87) 『顯宗實錄』, 상계서

88) 『顯宗實錄』, 상계서

89) 『顯宗實錄』 卷1, 卽位年 6月 19日 戊申. “水原便近 且無凶害 定用可也”.

90) 『顯宗實錄』 卷1, 卽位年 7月 2日 辛酉.

91) 『顯宗實錄』 卷1, 卽位年 7月 2日 辛酉.

“수원의 산은 大風水로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감히 흠을 잡지 못하겠지만 다만 혈을 짚을 때 보는 바에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산세를 바라보고 용을 찾기는 쉽고 산에 올라 혈을 짚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또 이르기를 3년 배워 용을 찾을 수는 있으나 10년을 배워도 혈을 짚지는 못한다.’ 하였으니 이산이 入首하는 맥은 명백하여 의심이 없으나, 脈아래에 乳頭가 있고 유두 아래에 평탄한곳이 있으며, 평탄한곳 아래에 禱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유두는 달리고 희롱하는 기세가 중지되지 않고 또 등글게 뭉친곳이 없으며, 청룡과 백호가 점점 낮아져서 흡족하지 못하니, 혈이 맺힌곳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평탄한곳은 형체가 구불구불하니 여기가 진실로 등글게 뭉친뜻이 있고, 청룡백호가 흡족하여 높지도 낮지도 않으니 여기에 혈을 맺는 것이 분명한 듯 합니다. 만약 좌향을 논한다면 구슬을 案對하여 빈곳으로 향을 놓는 것이 바꿀 수 없는 바른 이치입니다. 전설에 玉龍國師가 이 산을 서린 용이 구슬을 희롱하는 격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용은 진실로 福龍의 大地이고 국을 이룬 형세는 완연히 서린용과 같고 하나의 둔덕은 앞에서 구슬이 되니, 이는 고격에서 말하는 품안으로 들어온 案對이니, 전설의 말이 헛되지 않은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둔덕은 낮고 작아 중시할것이 못된다하지만, 古格에 이르기를, ‘천길이나되는 높은 산이라도 평지의 한둔덕에 미치지 못한다.’ 고하였으니, 낮고 작다 하여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물건의 형상은 이치가 있으니, 지형이 물건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형상이 천지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 둔덕은 이미 龍의 턱아래 구슬이 형상한 것이니, 하필 커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작을수록 더욱 귀한 것입니다. 古格에서 案山을 논하기를, ‘세 봉우리는 중간의 봉우리를 대하여야 하고 두 봉우리는 빈 곳을 대하여야 한다. 빈 곳을 대하는 이유는 요컨데, 두 봉우리는 아울러 쓰자는 것이고 좌우가 고르고 바름을 요하는 것이다. 또 빈곳의 바람이 혈속으로 침범하여 쓸 것이니 해로움이 작지않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생각해보면, 두 봉우리에서 빈곳을 대하는 법이 조화의

묘법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국은 본체가 되고 음양은 작용이 됩니다. 진실로 참된 형국과 바른 좌향을 얻는다면 스스로 천연적인 자연의 묘용에 합하므로 음양은 구구하게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구슬을 안대로 하고 빈곳을 향으로 하여 좌우로 미루어 옮긴다면 어찌 음양에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음양에 구애된다고 하더라도 120분금이 이미 많아 참된 것을 얻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360分金에서 꼭 참된 것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에 오르면 반드시 羅經을 찰 필요는 없다.’ 하였고, 또 ‘다만 좋은 주인이 어진 손님을 대접한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堪輿家에 있어 大中至正의 긴요한 의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앞은 소견으로는 평탄한곳에 구슬을 안대로 하고 빈 곳으로 향을 놓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이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두에 혈을 짚으면 평탄한곳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구슬을 안대로 하고 빈곳을 향으로 하니 오히려 가하겠지만, 평탄한곳의 진혈을 잃고 또 구슬을 안대하여 빈 곳으로 향을 놓는 묘법을 잃어버린다면 大龍의 大局이 한갓 걸치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혈을 짚을 때 힘써 다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는 믿어주지 않아 말을 하더라도 유익함이 없고 저 역시 이 산이 꼭 나라에 쓰일 것은 믿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만 여러 번 소견을 진술하고 다투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꼭 이산을 쓴다면 착오를 일으켜 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sup>92)</sup>.

윤선도는 수원의 화산터가 보기 드문 大龍, 大局의 大明堂으로 入首가 뚜렷하며, 穴을 맺는 곳은 乳頭처럼 생긴 곳 바로 아래의 평탄한 곳이라 하였다. 이것은 혈의 모양이 젓가슴처럼 볼록한 가운데 약간 들어간 혈로, 穴象으로 말하자면 “乳中微窩”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풍수에서 生氣가 가장 잘 맺히는 곳을 혈이라고 하는데, 이 혈의 모양은 보통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 네 가지는 窩, 鉗, 乳, 突로 窩와 鉗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혈이고, 乳와 突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혈의 모양을 말한다. 그런

92) 『弘齋全書』 卷57, 雜著4, 「遷園事實」.

데 윤선도가 말한 수원화산의 혈 모양은 불룩하게 튀어나온 중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sup>93)</sup>

정조는 윤선도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풍수적 관점으로 신료들에게 현릉원 자리를 확정하였다.

“乳頭 아래 평탄한 곳에 裁穴하고 작은 언덕을 案對해서 坐向을 놓으면 바로 이른바 구슬을 안대한다는 것이다. 구슬을 안대하려면 두 봉우리 사이 빈 곳으로 案이 가는데, 이것이 또 이른바 구슬을 안대하면 빈 곳으로 向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分金도 이렇게 재혈하고 이렇게 좌향을 놓고 이렇게 안대할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결정하였다. 지금 경 등을 대하여 속에 쌓아 두었던 말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음으로 돕고 神明이 묵묵히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sup>94)</sup>

즉, 정조가 판단한 현릉원 터의 풍수는 윤선도가 이야기한 盤龍弄珠의 형상이다. 그렇기에 최고의 이상적인 遷園터였으며, 새로운 친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3. 顯隆園 遷園의 展開科程

1789년 7월 11일 박명원의 상소로 시작된 영우원의 수원 천원 계획은 정조의 결단으로 구체화되었다. 정조는 자신의 뜻을 「水原山論」을 신하들에게 읽히면서 수원으로의 천원 계획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이미 자신의 의중에 수원 자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

93) 成東桓, 「顯隆園 遷園과 華城建設을 통해 본 正祖의 風水地理觀」, 『韓國思想史學』, 2001, p.17

94) 「正祖實錄」卷27, 13年 7月 11日 乙未.

에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기해년에 봉표해 둔 곳이 바로 이른바 乳頭로서, 아래쪽의 낮은 곳에 비하면 너무 올라오고 드러나는 혐의가 없지 않으니, 오직 달무리처럼 둥그렇게 평탄한 곳이 바로 진정한 福龍吉地이다.吉日이 머지 않았으니 오늘날의 급선무로는 그 고장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다음으로 고을을 옮길 계획을 의논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나는 人情이 편안한 뒤에야 地理도 길해진다고 생각한다. 백성을 옮기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여러모로 계획을 세워 각각 살 곳을 정해 안주하게 하였거니와, 왕명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무마하는 책임을 맡은 나의 신하는 감사와 지방관이 바로 그들이다.”<sup>95)</sup>

이와 같이 수원 봉표처가 福龍吉地로서 매우 만족해하였으며, 遷園에 아울러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도시 이전을 준비하였다.

이어 경기 관찰사 趙鼎鎭과 수원 부사 金魯永을 內職으로 옮기고, 徐有防을 경기 관찰사로, 趙心泰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우원의 제사 의식도 太廟에 버금가는 것으로 大夫의 예를 사용해서 제사할 것을 지시하였다.<sup>96)</sup> 이어 다음날은 7월 12일에 정조는 수원 지역민들에게 생업에 계속 종사하며, 이사를 함에 있어 그에 따른 구휼을 할 것임을 알려주게 하였다.<sup>97)</sup> 이는 수원으로 천원함이 비단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수원 백성들의 안정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7월 13일에 영의정 김익, 좌의정 이성원, 우의정 채제공, 관상감 제조 김종수, 선공감 제조 서유린, 예조 판서 이재간, 도감 제조 이재간·정민시·이문원이 수원의 置標한 곳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이들 모두는 수원의 천원 자리가 지극히 길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며 극찬을 하였다.

95) 『正祖實錄』 卷27, 상계서

96) 『正祖實錄』 卷27, 13年 7月 11日 乙未.

97) 『正祖實錄』 卷27, 13年 7月 12日 丙申.

“地師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극히 길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 花山이 왼쪽으로 돌아 건방乾方으로 떨어져서 主峯이 되고 건방의 主山이 亥方으로 내려오다가 癸方으로 돌고 다시 丑方으로 뺏어오다가 艮方으로 바뀌면서 入首하였다. 앞에 雙峯이 있는데 두 봉우리 사이가 空이 되고, 안에 작은 墩이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구슬 같다. 癸坐丁向으로 安葬하면 그 구슬은 턱밑의 구슬이라 할 수 있고 공은 빈 곳을 안대하는 공이라 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건방에서 得水하고 왼쪽으로 을방에서 득수하며 또 申方의 물이 午方에서 破하니, 水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청룡 네 겹과 백호 네 겹이 에워싸 局勢가 만들어졌는데, 穴이 맺힌 곳이 마치 자리를 깬 것처럼 평퍼짐하니 혈 자리가 분명하다. 뺏어온 용의 기세가 7백 리를 내려왔는데 용을 보호는 물이 모두 뒤에 모였으며, 玄武로 入首하였으니 천지와 함께 영원할 수 있는 더 없는 大地라고 할 수 있다”<sup>98)</sup>

결국 영의정 김익을 비롯한 삼정승과 관상감 제조의 花山 풍수는 너무나도 명당지리였다. 이는 윤선도의 수원에 대한 풍수지리적 측면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정조의 의중을 반영한 보고였다.

이 보고를 받은 정조는 한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가슴아픈 마음을 회고하며 다시 김익에게 정확한 의견 개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익은 花山의 여러곳을 살펴본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익을 비롯한 신료들과 地師들은 화산 위쪽 방면부터 살핀 결과 혈 자리의 약간 높은 곳에 앉아 국세와 청룡 백호를 둘러보니, 국세가 평탄하고 반듯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청룡 백호가 에워싸지 않은 것이 아니나, 평탄하고 반듯한 속이 너무 넓고 크다는 느낌이 없지 않고, 에워싼 속 역시 견고하게 결속된 형세가 약간 모자랐으며, 안계(眼界) 역시 조밀하고 번잡한 듯하다고 하였다.<sup>99)</sup>

98) 『正祖實錄』 卷27, 13年 7月 13日 丁酉.

99) 『正祖實錄』 卷27, 전계서

하지만 그 아래 평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둘러보니 국세가 평온하고 청룡 백호가 긴밀하며 또 혈 좌우를 매미가 날개를 양쪽으로 펼친 듯한 형국이 있으며, 안계도 매우 조용한 길지라고 하였다.

“시야 속에 작은 墩이 혈 자리와 직선으로 대치해 있는데, 이곳이 본래 부터 칭송되어오는 서린 용[盤龍]의 형상이고, 이 돈을 서린 용이 희롱 하는 구슬[弄珠]이라고 한 말이 신의 凡眼으로 보아도 정확한 논평인 것 같습니다. 對案으로 말하면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 만약 봉우리로 향을 놓아 案山으로 삼으면 두 봉우리의 기세를 다 끌어들이 수 없을 것 같고, 두 봉우리 사이의 빈 곳으로 향을 놓으면 두 봉우리의 기운이 합쳐 하나의 案이 되니, 예로부터 이른바 구슬을 안대해 빈 곳으로 향을 놓는다[對珠向空]는 말이 이런 뜻에서인 듯합니다. 세 地師의 말이 이미 모두 癸坐丁向으로 통일되었으니 바뀔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sup>100)</sup>

이에 정조는 영우원의 천원 자리를 수원 자리로 확정하였다. 정조는 수원을 비록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밤낮으로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헤아렸다. 그런데 김익의 말이 자신이 헤아린 바와 거의 일치하기에 몹시 흡족해하였다.<sup>101)</sup> 이는 정조가 자신의 측근 화가들에게 수원의 지세를 그려오게 해서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세자의 봉분 석물 제작을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石材의 공급 장소까지 지정해주었다. 石材는 피꼬리봉 및 山城 밖에 떠내기에 적당한 곳에서 떼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석재의 품질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南陽·江華 등지의 석재로 欄杆石과 屏風石을 제작하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御駕를 수행하는 百官들의 거처를 염려하여 보존할 만한 관청은 철거하지 말고 신하

---

100) 전계서

101) 전계서

들이 들어가서 거처하는 공간을 삼으라고 하였다.<sup>102)</sup>

8월 9일 新園의 원호를 의논을 통하여 ‘顯隆’이라 정했는데,<sup>103)</sup> 이는 ‘顯父에 응성하게 보답한다’는 의미였다. 신원의 호가 결정되자, 현릉원誌文이 문제로 떠올랐다. 정조는 지문을 지으려면, ‘某年事’(1762년의 壬午禍變)를 불가피하게 언급해야 하는데, 전례대로誌狀에 편입하면 ‘차마 드러내지 못한다’는 뜻과 어그러지는 면이 있으니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신에게 하문하였다.

이때 영의정 김익은 신중을 기할 것을 건의하였고, 徐命善과 李在協은 그 공개에 찬성하였다. 체제공은 당시의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적되, 공개는 미루자는 입장을 진언하여 정조의 찬동을 얻었다.<sup>104)</sup> 그리고 이 달에 임오화변 당시 사도세자의 구명을 위하여 간언 끝에 유배당했던 故大司憲 韓光肇에게 ‘忠貞’이란 시호를 내려 壬午忠臣으로 표창함으로써 생부의 정당성을 천명하기도 하였다.<sup>105)</sup>

정조는 천봉이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양주 배봉산의 영우원을 전배하였다. 8월 12일 왕은 원소를 파헤칠 때 드리는 啓園禮를 올렸는데, 어가가 安樂峴에 이르렀을 때부터 가슴속이 막히는 膈氣로 여러 차례 멈추어 탕약과 환약을 들어야 할 정도였다.

정조의 선친에 대한 추모의 정은 8월 20일의 영우원 전배로 이어졌고, 이때도 격기 끝에 혼절과 구토 증세가 나타날 만큼 그 사모의 정이 각별하였다. 10월 1일, 정조는 영우원에 나아가 친히 산역을 감독했고, 그 이튿날에도 산역을 감독하다가 호곡 끝에 가슴 막히는 격기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思父에 대한 사무친 恨을 드러냈다.

이때 원소를 열고 보니, 水氣가 과도한 데다가 火氣마저 있어서 옷칠이 그슬려 부풀어 있었다. 10월 4일에는 壙中에 물이 한 치 가량 고여 있고 판자가 화기로 흑색으로 그슬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정조의 견해대로

---

102) 전계서

103) 『正祖實錄』卷27, 13年 8月 9日 壬戌.

104) 『正祖實錄』卷27, 13年 8月 21日 甲戌.

105) 『正祖實錄』卷27, 13年 8月 28日 辛巳.

풍수적으로 흉지임이 확실하게 증면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정조가 풍수 사상에 대한 풍부한 학식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靈輿가 수원으로 출발한 것은 10월 5일의 일이었다. 정조는 말을 타고 뒤따르다가 영여가 독섬나루[瀟島津]의 舟橋를 무사히 건너자 호곡으로 작별하고 환궁했으며, 이때 영여는 과천에 머물렀다. 6일 과천을 출발한 영여는 수원 新邑의 幕次에 이르러 晝停奠을 지낸 다음, 다시 출발하여 신원소(현릉원)에 도착하였다. 이 날 정조는 果川縣에 晝停했는데, 沙斤峴을 지날 때 1760년(영조 36)에 장헌세자가 온양 온천행 도중 주장했던 옛터를 찾아보고, 그때 행차를 구경한 민인들에게는 쌀을 지급하도록 경기관찰사에게 명하였다.<sup>106)</sup>

7일 새 원소에 도착한 정조는 재실에서 總服(상복)을 갖춰 입고 정자각에 나아가 관을 살펴본 후 원소에 이르러 壙안의 흙 빛깔과 사방 산의 局勢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산의 봉우리에 올랐다가 동행한 총호사 채재공에게 “이 산의 이름이 花山이니만큼 꽃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겠다”고 하교하셨다.<sup>107)</sup> 이날 밤 10시 경 관을 묻는 壙中인 玄宮에 옮겨서 하관했는데, 이때 정조는 친히 지은 誌文을 무덤 속에 넣었다.

관이 상여에 오를 때부터 정조는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 마지않다가 가슴 막히는 증세가 일어나 관이 현궁에 내려지자 그 증세가 매우 위태로웠다. 좌우의 신하들이 부축하여 겨우 배례를 드린 후 정자각에 돌아와 虞祭를 올렸다. 다시 재실로 돌아온 정조는 “대례를 이미 잘 마치었으니, 이제는 자궁을 들어가 뵈는 것을 한 시각도 지체할 수 없다. 내일 아침 일찍 수원의 신읍을 출발하여, 과천의 숙소에서 晝停을 하고 모래 환궁하겠다”고 하교하였다.<sup>108)</sup>

정조는 8일 날이 채 밝기도전에 재차 원소에 나아가 산역을 감독하고, 묘소 앞에 나아가 현릉원을 하직하는 제사를 드린 후, 재실에서 평소의 戎服을 갈아 입고 환궁 길에 올랐다.

106) 『正祖實錄』 卷27, 13年 10月 6日 戊午.

107) 『正祖實錄』 卷27, 13年 10月 7日 己未.

108) 『正祖實錄』 卷27, 상계서.

정조는 환궁길에 앞서 현릉원 천원에 대한 소회와 백성들의 慰撫에 대한 전교를 내렸다.

“이 고을의 花山은 원래부터 靈氣가 모인 곳으로서, 그 형상은 서린 龍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고, 그 땅은 천리를 가다가 한 번이나 만 날까말까 한 곳이어서, 園寢으로 의논하여 정하고 드디어 천봉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따라서 이 고을은 바로 나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고을이고, 너희들은 이 고을의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마치 한 식구처럼 여기면서 먹거리를 넉넉하게 하고 산업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생활에 안주하고 생업을 즐기는 방도를 알게 해줘야,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의 생각을 풀 수 있을 것이다.”<sup>109)</sup>

수원향교 앞에서 국왕을 맞고 있던 10여 명의 유생들에게 학문에 힘쓰도록 격려하고, 수원행궁에 이르러 경기감사와 수원부사에게 명하여, 지방 父老와 校屬들을 들게 하고, 호조판서 서유린에게 이들의 노고를 위로 하고 돌봐주도록 명하였다.

정조는 훗날 현릉원의 풍수지리적 측면에 대해 신료들에게 공개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즉 1백 리의 평야에 이러한 형국이 이루어졌으니 靑龍과 白虎가 둘러싼 것과 朝對山의 밝고 수려한 모습은 비록 평범한 사람의 안목이라도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당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리를 얻은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을 얻었다고 할 정도로 현릉원의 風水에 대해 대단한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sup>110)</sup>

현릉원의 공역은 10월 16일에야 완공되었는데, 이장할 때 소요된 총 경비는 184,600여兩, 쌀 6,326석, 목면 279同, 布가 14동이였다.<sup>111)</sup> 현릉원 천봉이 계획될 때 정조는 寧陵(효종) 이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화 되었던 欄干石을 제외하고, 모든 石物은 光陵(세조)의 예에 따를 것을 하교한 바 있었다.<sup>112)</sup> 그리하여 현릉원은 合園의 制穴로 설치하는 만큼 전

109) 『正祖實錄』 卷27, 13年 10月 11日 癸亥.

110) 『正祖實錄』 卷34, 16年 1月 25日 乙未.

111) 『正祖實錄』 卷27, 13年 10月 8日 庚申.

112) 『正祖實錄』 卷27, 13年 8月 16日 己巳.

후의 석물을 배설할 곳이 매우 비좁으니, 병풍석 이외의 석물은 광릉의 제도에 따라서 魂遊石 1坐, 長明燈 1좌, 望柱石 1쌍, 문·무석 각 1쌍, 羊·馬·虎石 각 1쌍을 마련케 하였다. 영우원 구원 터에는 산 이름을 딴 拜峰鎮을 설치하여, 묘역의 수리·관리 등을 관장하도록 조치하였다.

## 第5章 結論

지금까지 顯隆園 遷園과 水原 新邑治 造成 그리고 華城建設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풍수지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원부 읍치는 宣祖와 孝宗의 陵寢으로 선정될 만큼 풍수적으로 國陵의 자리였다. 하지만 당시 黨爭의 문제와 더불어 수원부 자체를 옮기는 대역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능침 자리로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조는 수원부 자체를 새로운 지역으로 옮길 정치적·경제적 자신이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신읍치 역시 당대의 풍수지리적 관점으로 매우 명당터였다. 특히 사도세자가 새롭게 영면하게 될 현릉원 터는 漢南金北正脈의 혈이 머무르는 당대 최고의 명당으로 정조의 호심을 더욱 지극하게 하였다. 이는 풍수의 대가로서 정조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정조는 다양한 학문적 체계를 갖고 있던 학자군주로서 儒·佛·仙 모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풍수에 대한 자기인식이 확고하였다. 정조는 부친에 대한 효행을 위한 陰宅風水와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陽宅風水를 연구하였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風水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당풍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地師들과 협의하여 현릉원 案山를 중심으로 네 곳에 여의주를 설치하였다. 이는 새로운 시도로서 적극적인 풍수지리의 의지이다. 동서남북 네곳의 여의주 설치와 더불어 배산임수의 지형도 적극적으로 조성하였다. 즉 현릉원 북쪽에서 흐르는 물을 봉분 앞으로 흘러내리는 것과 동시에 坤申池라고 하는 연못을 조성하였다. 정조와 신료들의 이러한 의지는 국정운영에 풍수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풍수를 재창조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릉원의 풍수지리를 이용한 조성 이후 陵園 조성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었다.

화성의 건설에서도 풍수적인 안목을 기반으로 華城의 立地나 特性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성곽을 쌓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준비했다. 성터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리적인 형세에 걸맞는 풍수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화성이 장소성을 갖춘 공간으로 꾸며질 수 있도록 했다.

자연지세에 따라 성벽을 쌓고 수많은 방어시설을 갖춘 화성은 서쪽의 팔달산 정상에 위쪽 꼭대기에 놓이도록 하고 성의 동쪽 부분이 아래에 오도록 구도를 잡았다. 이러한 성곽의 지형은 都城의 형태를 추구한 것과 동시에 철저한 풍수지리관에 입각한 것이다. 서울 도성의 경우 남향을 원칙으로 한데 비해 화성은 동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남향으로 할 경우 풍수를 거역하기에 의도적으로 동향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화성 성곽은 팔달산 정상에서부터 동쪽으로 여러 차례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개천이 흘러 들어오는 오른쪽(북쪽) 중간 부분에서 성벽이 안쪽으로 구부러지다가 다시 앞으로 길게 뻗어 나왔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도 버들잎 모양을 갖추었다는 전체 윤곽을 강조하기 위해 굴곡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과 동시에 각각의 시설물이 들어서는 공간에 풍수를 적용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성내 구성에 있어서도 18세기 도시의 변천에 따른 새로운 시도가 추진되었다. 성내는 팔달산 아래에 행궁과 관청이 자리잡고 화성행궁은 정상아래의 산기슭을 따라 경사지가 펼쳐지고 그위에 화성행궁이 자리를 잡았다. 화성행궁은 시가지가 열리는 곳의 평지에 위치하며, 주산(主山)인 팔달산을 중심으로 북동향으로 조산(組山)인 광교산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뒤쪽으로는 산에 기대고 앞으로는 물에 임하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의 명당으로써 용이 서리고 봉황이 나는 형상임을 알 수 있다. 화성건설에 신 풍수지리관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새로운 도시의 모델이 되었고 이는 현대 도시건설의 모범이 되었다. 현대인들이 보아도 화성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비롯한 시가지 정비는 매우 탁월한 것이다. 이러한 화성건설은 현재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현릉원 천원의 단행에서 볼 수 있듯이 정조는 전통적인 음택풍수의 관점과 논리를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풍수지리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 실학적 지리관은 당대 풍수의 변화를 일으켰고, 마침내 수원 신읍치 조성과 화성건설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수원은 조선후기 교통의 중심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21세기에 이르러 경기지역 수부도시로 아울러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 도시로서 풍수에 입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는 도시의 발전과 개발, 큰 개념의 국토의 전반적인 이용계획에서도 풍수적인 사상이 도입되어 자연과 순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발이 진행되길 바라는바 이다. 결론적으로 풍수하면 작은 의미로 집터(양택)사후의 묘지선정(음택)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좀더 풍수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분야에 널리 적용되어 우리문화가 계승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參考文獻

## I. 國內文獻

朴 時翼, 「韓國의 風水地理와 建築」, 圖書出版 일빛, 1999.

林 鶴燮, 「傳統 風水地理」, 明文堂, 1993.

임 중빈, 「朝鮮 國王 評傳」, 啓明社, 2002.

김 두규, 「우리땅 우리 風水」, 東學社, 1998.

崔 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1989.

崔 昌祚, 「땅의 論理 人間의 論理」, 民音社, 1992.

이 익성 譯, 「擇里志」, 을유문화사, 2002.

申 坪 譯, 「地理五訣」, 東學社, 1993.

韓 松溪 譯, 「風水地理 明堂全書」, 明文堂, 1994.

崔 昌祚 譯, 「靑烏經·錦囊經」, 民音社, 2001.

김 두규 譯, 「胡舜申의 地理新法」, 圖書出版 장락, 2001.

김 두규 譯, 「名山論」, 比峰出版社, 2002.

한 중수 譯 「청오경」, 명문당, 1996

이 돈직 譯 「풍수지리학설심부」, 예가, 2001

김 동규 譯 「인자수지(풍수지리)」, 명문당, 1992

## II. 국내논문

朴 時翼, 風水地理說과 建築 計劃과의 關係에 관한 分析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朴 時翼, 風水地理說의 發生背景에 관한 分析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87.

강 현구, 풍수지리이론과 주거입지론과의 관계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 충영, 관광활성화 전략으로서 수원화성의 정비방안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金 東勳, 水原 華城境內의 保全과 回復에 관한연구, 弘益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03

#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Geomancy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in Suwon Area  
-centering on Hwaseong haenggung-**

Cheong Ban-seok

Major in Real Estate Investment Financ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The University of Hanseong

Geomancy has been a philosophy, theory and method to pioneer new fate throughout Korea's history. To Koreans who live in special environment, 70% of which is surrounded by mountains, it has played a key role in blessing individual, and selecting places with "ki" as sites of capital city, palace and governmental buildings.

Theoretically speaking, Korea's traditional geomancy consists of Yin geomancy and Yang geomancy. The former is a theory about houses of the dead, or tombs, while the latter is about houses, buildings and cities of the alive. Both of these are to analyze spatial spirit affecting human beings including natural spirit, such as mountains, rivers and directions, and artificial

spirit such as architecture. In this regard, geomancy, that brought prosperity and advanced civilization to Koreans by analyzing spatial spirit, is an object we should study and keep in check.

It is true that geomancy brought benefits to human life as a science. However, it has been often maliciously used. Sometimes it was utilized as a justified method to accumulate wealth and power, other times, as a method to change or found regime.

This resulted from geomancy's natures, that is, incitement, mystery and revolution. That explains why power and geomancy have been mutually reinforcing, and further, leading to retention and recapture of power.

The founding father of the Corea dynasty, Wang Gun was given to geomancy from the moment of his birth, and geomancy was one of his political philosophy as he founded Corea and executed his policies. His philosophy on geomancy, well revealed in his 『Hunyoſipcho』, served as an ideological standard even after his death.

The founding father of the Choseon dynasty, Lee Seong-gye also turned to have a close relation with geomancy, along with Muhak, since his childhood. He is well known to have directly used geomancy theory in transferring the capital city to

Hanyang after founding the county. In addition, Myocheong's riot, in which transferal of the capital city from Gaeseong, the capital of Korea, to Seogyeong was argued, was a struggle for power aiming to seize Seogyeong faction's power by utilizing geomancy.

To be short, geomancy has served as the groundwork for political power. Yet, geomancy was better reflected in Heonryungwon Cheonwon and transferal of Suwonbu Eupchi in the reign of King Cheong-jo of the Choseon dynasty.

It is safe to say the fourth King Se-jong and the 22th King Cheong-jo are the most creative and innovative Kings among 27 Kings during the Choseon dynasty. King Se-jong is well known for far-flung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agriculture, science, defence and culture as well as invention of Korean alphabet, while King Cheong-jo's achievements of bringing prosperity and cultural renaissance in the latter part of Chosen are relatively poorly known. The general public only know King Cheong-jo as a faithful son of Prince of Sado who was unfortunately killed during Imowhabyeon, and as a King who created a royal library, Gyuchanggak.

However, King Cheong-jo established a new city and built Hwaseong which is referred to as the best among castles of the Choseon dynasty, in order to realize his ideal of absolute

monarchy and democracy.

Suwon city built in the late 18th century was a historic project combined political ideal of absolute monarchy King Cheon-jo, prosperity of reign and innovative politics, and experienced knowledge of scientists. It consisted of various infrastructures such as the biggest palace in Choseon, governmental buildings and commercial buildings.

Among other things, he built Hwaseong reaching 5.7km as the best castle, and assigned powerful forces to the castle. In addition, he promoted agriculture by making big reservoirs and Dunjeon system. He also helped the town become a planned castle, a modernized city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inducing the rich,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However, studies on King Cheong-jo's achievements and Hwaseong have been focused on politics, military, economics and literature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The reason why King Cheong-jo led Hyeonryungwon cheonwan and why he selected Suwon shineupchi as the site have not been properly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geomancy.

Some studies, of course, attempted to approach from the view point of geomancy, but they produced only fragmented results because they were not conducted by geomancy experts. Expert studies on geomancy also focused on only King Cheong-jo's

geomancy through Seongdonghwan's Hyeonryungwon cheonwon and establishment of Hwaseong. without paying attention to geomancy of Hyeonryungwon and Hwaseong. Yet, even these studies were centered not on geomancy of Hyeonryungwon and Suwan shineupchi but on Cheong-jo's thoughts on geomancy. In this respect, it is safe to say that due attention has not gone to geomancy about creation of Suwon shineupchi and establishment of Hwaseong.

Although some city planning and architects showed results of studying Hwaseong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this only alluded to fragmented facts.

Therefore, I intend to find out the historical process of establishing Hwaseong and geomancy's effects on the process. Hwaseong, built on Suwon shineupchi that had been selected from the 17th century's practical geographical point of view, is the climax of castle culture in the 18th century. This was built in collabora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high ranking officials including King Cheong-jo. Yet the scale and location were not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geomancy. Studies on this field have not proceeded, and literature concerned does not exist, either. In this regard, I seek to illuminate how geomancy affected in establishing Hwaseong by studying the current state of Hwaseong, which has not changed since the 18th century,

and geomancy of view of Suwon from Hwaseong. In addition, I aim to confirm that Suwon wa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enter city of the Choseon dynasty by studying architecture and geomancy of Hwaseong haenggung, the object and center of Hwaseong.

I also attempt to review that the historical facts on Hyeonryungwon cheonwon, the critical factor of selecting Suwon shineupchi as the site. This will help confirm that King Cheong-jo led Hyeonryungwon cheonwon and transferal of Suwon's eupchi in order to strengthen his power. Plus, I aim to show the changed state of geomancy after the 17th century by comparing geomancy of Hyeonryungwon and geomancy of Suwon gueupchi and shineupchi. Traditional geomancy prevailed in society before the 17th century. Meanwhile, after the 17th century through the 18th century, awareness on geomancy changed. I will identify the changed geomancy in selecting sites of palace and governmental buildings.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Suwon and pioneer its future by studying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process on establishment of Suwon city in the 18th century, and by perceiving the results of historical studies, practical geographical perspective in the 18th century and geomancy of the current Suwon.

## ☞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을 쓰기까지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 박시익 교수님과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따듯한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신 안정근 교수님, 민태욱 교수님, 이용만 교수님, 그리고 고인이 되신 박병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하는데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이대식(가브리엘)수사님과 김강주님 그리고 성당 레지오 단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석사논문을 마치게끔 늘 염려와 격려 때로는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의 따듯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의 김용서 시장님, 천명수 부시장님,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화성사업소 박동수소장님, 김충령 과장님, 최군식 건축과장님과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신 송해동과장님 건축과에 근무하고 계신 여러 계장님들과 직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막둥이를 키우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 송영신과 믿음직한 아들 시몬, 사랑스런 딸 슬기와 귀염둥이 막내 지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병고에 시달리시지만 항상 자식걱정에 늘 염려하고 계시는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발전을 위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신 장인장모님과 누님이신 정세훈님과 두 여동생인 보나, 미경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미흡하나마 제가 공부한 학문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공직자로서의 업무추진에 결합시켜 수원시의 발전에 한줌의 밑알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